

알기 쉬운 통일교육Ⅲ

북한이탈주민용

- 조정아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철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영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윤상석 |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이향규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황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원

알기 쉬운 통일교육Ⅲ

북한이탈주민용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알기 쉬운 통일교육Ⅲ: 북한이탈주민용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인 쇄: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I S B N 978-89-8479-734-5 93340
가 격 11,000원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알기 쉬운 통일교육Ⅲ

북한이탈주민용

- 조정아**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철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영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윤상석 |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이향규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황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원

목 차

I 장	연구 개요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과정	5
II 장	통일교육 요구 분석	7
	1.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수요 조사	9
	2. 질적 면접을 통한 통일교육 요구 분석	72
III 장	통일교육 교수 자료	83
	1. (1차시) 남북분단과 전쟁	85
	2. (2차시) 남북한 사회의 발전	113
	3. (3차시) 한국사회의 다양성	144
	4. (4차시) 민주적 의사소통 _ 사회생활	166
	5. (5차시) 민주적 의사소통 _ 가정생활	188
	6. (6차시)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212
	* 첨부 -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수요조사 설문지	235

표목차

〈표 II-1〉 지역별, 성별, 연령별 조사 대상자 수	10
〈표 II-2〉 응답자 배경변인 분포	11
〈표 II-3〉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의 한국학교 재학기간 분포	13
〈표 II-4〉 남북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습요구	18
〈표 II-5〉 남북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습요구와 통계적 관련이 있는 배경변인	21
〈표 II-6〉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방식(문화)의 차이 인식	28
〈표 II-7〉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방식 차이와 통계적 관련이 있는 배경변인	31
〈표 II-8〉 남한 사회에서의 갈등 극복의 어려움	35
〈표 II-9〉 남한 사회에서의 갈등 극복의 어려움과 통계적 관련이 있는 배경변인	37
〈표 II-10〉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	42
〈표 II-11〉 2012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44
〈표 II-12〉 북한에 대한 인식의 집단별 분석 결과	44
〈표 II-13〉 통일의 필요성 응답 분석	46
〈표 II-14〉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통일 필요성 응답 비교	46
〈표 II-15〉 통일 필요성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47
〈표 II-16〉 2012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47
〈표 II-17〉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응답 분석	48
〈표 II-18〉 2012년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통일교육협의회)	49
〈표 II-19〉 통일의 기대 이익 응답 분석	49
〈표 II-20〉 2012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50
〈표 II-21〉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중복 허용)	51

〈표 II-22〉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중복 제외)	52
〈표 II-23〉 2012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52
〈표 II-24〉 통일교육 강사활동 경험에 따른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분포	53
〈표 II-25〉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한 응답 결과	53
〈표 II-26〉 2012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54
〈표 II-27〉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한 집단별 분석 결과	54
〈표 II-28〉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응답 결과	54
〈표 II-29〉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집단별 분석 결과	55
〈표 II-30〉 2012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56
〈표 II-31〉 2012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KBS)	56
〈표 II-32〉 통일 후 변화에 대한 전망	57
〈표 II-33〉 2012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59
〈표 II-34〉 통일 후 변화에 대한 전망과 통계적 관련이 있는 배경변인	60
〈표 II-35〉 통일교육 경험 여부	65
〈표 II-36〉 통일교육 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중복 허용)	65
〈표 II-37〉 통일교육의 도움 여부 응답 분석	66
〈표 II-38〉 통일교육 강사활동 경험 여부	66
〈표 II-39〉 통일교육 요구 영역 분석(중복 허용)	66
〈표 II-40〉 통일교육 참석 의향	68
〈표 II-41〉 통일교육 참석 의향과 통계적 관련이 있는 배경변인	69
〈표 II-42〉 질적 면접 대상자	72

그림목차

〈그림 II-1〉 응답자 성별 분포	12
〈그림 II-2〉 응답자 연령대 분포	12
〈그림 II-3〉 응답자 북한 최종학력 분포	13
〈그림 II-4〉 응답자 거주지 분포	14
〈그림 II-5〉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거주	14
〈그림 II-6〉 응답자 직업 분포	15
〈그림 II-7〉 응답자 가구 월평균 소득 분포	15
〈그림 II-8〉 응답자 남한 거주기간 분포	16
〈그림 II-9〉 응답자 해외체류기간 분포	16
〈그림 II-10〉 응답자 통일교육 강사경험 분포	17
〈그림 II-11〉 남북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습요구 점수 비교	20
〈그림 II-12〉 ‘남한 역사를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 분석	22
〈그림 II-13〉 ‘남한 역사를 알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 분석	23
〈그림 II-14〉 ‘남한의 경제 발전에 대해 알고 싶다’에 대한 응답 분석	23
〈그림 II-15〉 ‘남한의 정치민주화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에 대한 응답 분석	25
〈그림 II-16〉 ‘남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싶다’에 대한 응답 분석	26
〈그림 II-17〉 ‘북한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분석	27
〈그림 II-18〉 ‘남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알고 싶다’에 대한 응답 분석	28
〈그림 II-19〉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방식 차이에 대한 인식 점수 비교	30
〈그림 II-20〉 ‘사회생활에서 사고방식 차이 인식’에 대한 응답 분석	31
〈그림 II-21〉 ‘남녀관계에서 사고방식 차이 인식’에 대한 응답 분석	33

〈그림 Ⅱ-22〉 ‘부모-자녀관계에서 사고방식 차이 인식’에 대한 응답 분석	34
〈그림 Ⅱ-23〉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고방식 차이 인식’에 대한 응답 분석	34
〈그림 Ⅱ-24〉 남한 사회에서의 갈등 해결 어려움에 대한 인식 점수 비교	36
〈그림 Ⅱ-25〉 ‘사회생활에서 갈등 해결 어려움’에 대한 응답 분석	38
〈그림 Ⅱ-26〉 ‘남녀관계에서 갈등 해결 어려움’에 대한 응답 분석	39
〈그림 Ⅱ-27〉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 해결 어려움’에 대한 응답 분석	41
〈그림 Ⅱ-28〉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 해결 어려움’에 대한 응답 분석	41
〈그림 Ⅱ-29〉 통일 후 변화에 대한 전망 점수 비교	59
〈그림 Ⅱ-30〉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 응답 분석	61
〈그림 Ⅱ-31〉 실업문제에 대한 전망 응답 분석	61
〈그림 Ⅱ-32〉 지역격차에 대한 전망 응답 분석	62
〈그림 Ⅱ-33〉 범죄문제에 대한 전망 응답 분석	63
〈그림 Ⅱ-34〉 이념갈등에 대한 전망 분석	64
〈그림 Ⅱ-35〉 통일교육 참석 의향에 대한 점수 비교	68
〈그림 Ⅱ-36〉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참석 의향 응답 분석	70
〈그림 Ⅱ-37〉 남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참석 의향 응답 분석	70
〈그림 Ⅱ-38〉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 극복에 관한 참석 의향 응답 분석	71

Ⅱ 국문요약 Ⅱ

알기 쉬운 통일교육 _ 북한이탈주민용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3차년도 연구에서는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및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통일에 관한 남북한주민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 의식실태와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통일교육 자료 및 강의자료를 개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제한적인 집단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및 북한문제 전반을 포괄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이 통일교육 콘텐츠의 일차적 교육대상은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각종 북한이탈주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다. 그 이외에도 통일부 하나원, 각 지역별 하나센터와 사회복지관, 각종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전체 교육내용은 총 3개 대주제, 6차시로 구성되었으며, 각 차시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각 차시별로 90분 수업 분량의 PPT를 제작하였다.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통일교육 요구분석 결과 및 자료 개발 결과물을 수록한 보고서와 강사용 수업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 제1주제: 남북한 상호이해와 분단의 극복

- 1차시: 남북분단과 전쟁
- 2차시: 남북한 사회의 발전
- 3차시: 한국사회의 다양성

▣ 제2주제: 남북한주민 소통과 통합을 위한 가치와 태도

- 4차시: 민주적 의사소통 - 사회생활
- 5차시: 민주적 의사소통 - 가정생활

▣ 제3주제: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 6차시: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 주제어: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 Abstract ▮

Easy-to-Learn Education on Unification _ for North Korean Immigrants

Cho, Jeong-ah et al.

In the third year development study of the educational contents on unification, researches were conducted concerning North Korean Immigrants'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and their need for education on unification; instructional materials of education on unification for North Korean immigrant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civic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immigrants and to cultivate public consensus between the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curriculum consists of three themes divided into six periods, 90 minutes amount of Power-Point presentations were prepared for each period. The report about educational need assessment and instructional manual were also made available.

▨ Chapter 1: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overcoming division

- The division and the Korean War
- Development of two societies
- Diversity of the Korean society

▨ Chapter 2: The adequate attitude and value for integration and
communication

- Communication skills: At work
- Communication skills: At home

▨ Chapter 3: The unification and the role of North Korean immigrants

- ※ Keywords: Education on Unification, North Korean Immigrants,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Contents on Unification



1.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과정

I |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 창출과 갈등 해소와 통일시대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정치적·제도적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통일을 촉진하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국민역량을 조성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 특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을 특정한 집단으로 특화시키기보다는 무차별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어서, 교육대상별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전문화, 교육자료 및 방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량생산 방식의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동질성을 지닌 소수의 특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품종 소생산’ 방식의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최근 수년간 안보중심의 통일교육이 강화되었지만, 통일문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 위협과 안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거나, 기존과 유사한 교육을 ‘안보’라는 수사학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보와 평화와 통일 간의 관계 문제, 민족공동체와 다문화의 조화 문제, 평화적 공존과 통일과의 관계 설정 문제, 북한 관련 교육에 있어서 객관성과 균형성 문제 등도 명료하게 규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통일교육 내용 영역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북한 및 통일문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남북한 사회통합에 필요한 민주적, 관용적 사고와 태도, 정서를 함양하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등 통일교육과 교호하는 교육을 포괄하면서 특성화된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의 범주를 달리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에 관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통일교육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나 한국사회의 특성을 다루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사회정착교육에서 통일교육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사회통일교육 현장에서 북한실상을 강연하는 강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조차 체계화된 통일교육 이수 경험은 별로 없는 경우도 많다.

이에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3차년도 연구에서는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통일외식 및 민주시민외식을 제고하고 통일에 관한 남북한주민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외식실태와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통일교육 자료 및 강의자료를 개발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과정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사회통일 교육용으로 통일의 필요성, 통일비전, 통일환경, 독일통일 분야의 12주제에 걸쳐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개발했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해외한인용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1, 2차년도 연구의 경우 교육대상층이 매우 광범위하여, 교재의 내용도 방대하고 백과사전식으로 구성되었으나, 3차년도 연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제한적인 집단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및 북한 문제 전반을 포괄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이 통일교육 콘텐츠는 사회통일교육 및 학교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각종 북한이탈주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일차적 교육대상으로 삼아 내용을 개발하였다. 그 이외에도 통일부 하나원, 각 지역별 하나센터와 사회복지관, 각종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에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1차년도의 사회통일교육 콘텐츠와의 중복을 피하고,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전체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총 3개 대주제, 6차시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일상사적 관점을 견지하여,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이산가족이 되었고 탈북 후 다시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고, 4차시와 5차시는 구체적인 갈등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제1주제: 남북한 상호이해와 분단의 극복

- 1차시: 남북분단과 전쟁
- 2차시: 남북한 사회의 발전
- 3차시: 한국사회의 다양성

▣ 제2주제: 남북한주민 소통과 통합을 위한 가치와 태도

- 4차시: 민주적 의사소통 - 사회생활
- 5차시: 민주적 의사소통 - 가정생활

▣ 제3주제: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 6차시: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북한이탈주민용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결과물은 각 90분 분량 총 6차시 수업 분량의 PPT 형태로 제작하였다. 교육 주체가 교수환경 및 학습자 조건에 맞추어 각 차시별 교육내용을 단계적 또는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통일교육 요구분석 결과와 각 차시별 수업 지도안을 수록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수업지도안은 각 차시별 수업의 교육 목표, 수업 단계별 교육내용, 수업 진행 방법, 참고자료 등을 수록하여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등의 통일교육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내용의 적절성과 난이도를 보정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원,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센터, 주요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의 교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강의와 교재 활용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II. 통일교육 요구 분석

1.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수요 조사
2. 질적 면접을 통한 통일교육 요구 분석

Ⅱ | 통일교육 요구 분석

1.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수요 조사

가. 조사 개요

일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설계는 교육 요구분석 → 프로그램 목표 설정 → 학습자 분석 → 교수설계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통일교육 자료 및 강의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통일교육 요구분석(need assessment)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표집에 의해 300명 규모로 표집하였다. 전화조사를 통한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센터의 전문상담사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2013년 5월 한 달간 실시되었으며, 면접조사 과정에서 최종적인 조사 참여 인원은 317명이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해있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수에 따라 표집하였고, 기타 지역은 광역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거주자 수에 따라 표집하였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표집 대상자 수는 2012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에 맞춘 것이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조사 대상자 수는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표 II-1〉

지역별, 성별, 연령별
조사 대상자 수

(단위 : 명)

연령 지역	20대				30대			40대		
	남	여	미상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서울	12	22		34	10	19	29	5	14	19
인천	5	6		11	2	5	7	2	4	6
인천 제외 광역시	4	9		13	8	10	18	2	6	8
경기	8	20		28	7	24	31	5	12	17
경기 제외 중소도시	5	10	1	16	8	15	23	6	12	18
합계	34	67	1	102	35	73	108	20	48	68

연령 지역	50대			60대			70대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서울	2	5	7	1	3	4		1	1	94
인천		1	1		1	1				26
인천 제외 광역시	1	1	2	1	1	2	1	1	2	45
경기	1	4	5	1	3	4				85
경기 제외 중소도시	2	4	6	2	2	4				67
합계	6	15	21	5	10	15	1	2	3	317

조사 설계는 조사 목적 결정 → 소요예산 검토 → 질문지 개발 → 자료분석 절차 검토 → 예비조사 실시 → 최종 조사 설계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내용은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 갈등 해결의 어려움 정도, 북한 관련 인식, 통일 관심도, 통일 이후 전망 인식, 통일교육 경험 및 통일교육 관련 강사활동 경험, 통일교육 관심도 및 내용별 교육 수요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에 활용한 설문지는 별첨으로 첨부하였다.

조사지 설계 후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조사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조사 수행 및 분석 과정은 조사 대상 집단표집 → 면접자 선정 및 교육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순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결과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기본 빈도 분석, 배경변수별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기존 전국민 대상 통일외식 조사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준 대상자들은 총 317명이었으며, 이들을 인구구성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 II-2>와 같다.

<표 II-2>

응답자 배경변인 분포

		(단위: 명 %)							
영역	구분	응답	비율	영역	구분	응답	비율		
성별	남성	100	31.5	직업	단순노무직	28	8.8		
	여성	214	67.5		판매·서비스직	23	7.3		
	무응답	3	0.9		기능직	39	12.3		
연령대	20대	102	32.2		사무직	15	4.7		
	30대	108	34.1		전문·관리직	11	3.5		
	40대	68	21.5		자영업	8	2.5		
	50대	21	6.6		농·수·축산업	2	0.6		
	60대 이상	15	4.7		사회단체 활동가	2	0.6		
	무응답	3	0.9		통일교육 강사	1	0.3		
	무학	11	3.5		학생	47	14.8		
북한 학력	인민학교졸업	40	12.6		가정주부	59	18.6		
	고등중학교졸업	198	62.5		직업훈련이수 중	23	7.3		
	전문학교졸업	50	15.8		무직	50	15.8		
	대학교졸업	16	5.0		기타/무응답	9	2.8		
	무응답	2	0.6		가구 월 소득	49만 원 이하	58	18.3	
	거주지	서울	94			29.7	50~99만 원	79	24.9
인천		26	8.2			100~149만 원	92	29.0	
광주/대전		45	14.2			150~199만 원	44	13.9	
경기		85	26.8	200~249만 원		22	6.9		
강원/경북/충남		67	21.1						

영역	구분	응답	비율	영역	구분	응답	비율
북한 이탈 주민 밀집 지역 거주	그렇다	228	71.9	가구 월 소득	250~299만 원	10	3.2
	아니다	43	13.6		300~349만 원	10	3.2
	모른다	41	12.9		350~399만 원	1	0.3
	무응답	5	1.6		400만 원 이상	0	0.0
남한 거주 기간	1년 이내	30	9.5	해외 체류 기간	무응답	1	0.3
	1~3년	102	32.2		1년 이내	120	37.9
	3~5년	89	28.1		1~3년	53	16.7
	5~10년	70	22.1		3~5년	34	10.7
	10년 초과	22	6.9		5~10년	72	22.7
	무응답	4	1.3		10년 초과	32	10.1
통일 교육 강사 경험	있음	20	6.3	무응답	6	1.9	
	없음	294	92.7				
	무응답	3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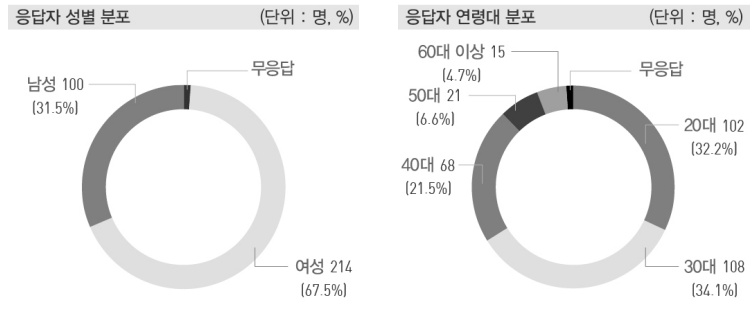
위의 <표 II-2>를 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100명(31.5%), 여성이 214명(67.5%)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08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102명(32.2%), 40대가 68명(21.5%), 50대가 21명(6.6%), 60대 이상이 15명(4.7%)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1>

응답자 성별 분포

<그림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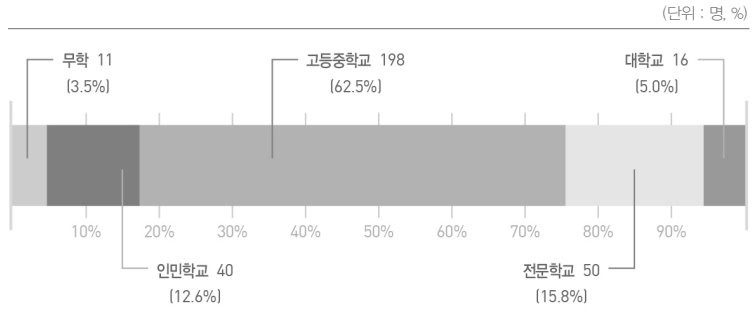
응답자 연령대 분포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을 질문한 결과를 보면, 고등중학교(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전문학교를 중퇴했다는 응답자가 198명(62.5%)으로 대부

분을 차지했으며, 전문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교를 중퇴했다는 응답자가 50명(15.8%), 인민학교(소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중학교를 중퇴했다는 응답자가 40명(12.6%),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16명(5.0%),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인민학교를 중퇴했다는 응답자가 11명(3.5%)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3〉
응답자 북한 최종학력 분포



다음으로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닌 기간을 주관식 응답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317명 중 100명(31.5%)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닌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응답자 중에서는 2년을 다녔다는 응답이 32명(32.0%)으로 가장 많았고, 1년을 다녔다는 응답이 23명(23.0%), 3년을 다녔다는 응답이 12명(12.0%)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기간은 1개월을 다녔다는 응답이 2명 있었으며, 가장 긴 기간으로는 12년을 다녔다는 응답자가 2명이 있었다. 이들의 응답 분포는 아래의 〈표 I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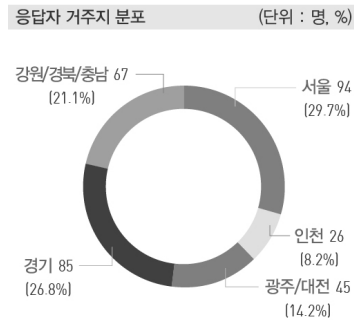
〈표 II-3〉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의 한국학교 재학기간 분포

한국학교 재학기간	1월	3월	6월	1년	2년	2년 6월	3년	4년	5년
인원수	2	1	3	23	32	1	12	8	2
한국학교 재학기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계	
인원수	4	2	1	3	2	2	2	100	

현재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94명(29.7%)이었고,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26명(8.2%)이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로는 광주와 대전 거주자가 45명(14.2%)으로 나타났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거주자가 85명(26.8%)이었으며, 경기도 이외에는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의 거주자가 67명(21.1%)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주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지를 질문한 결과 228명(71.9%)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아니라는 응답이 43명(13.6%), 모른다는 응답이 41명(12.9%)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변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분석에서는 모른다는 응답은 제외하고 그렇다와 아니다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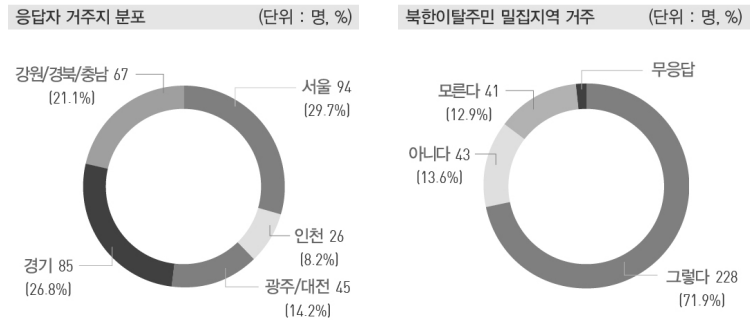
〈그림 II-4〉

응답자 거주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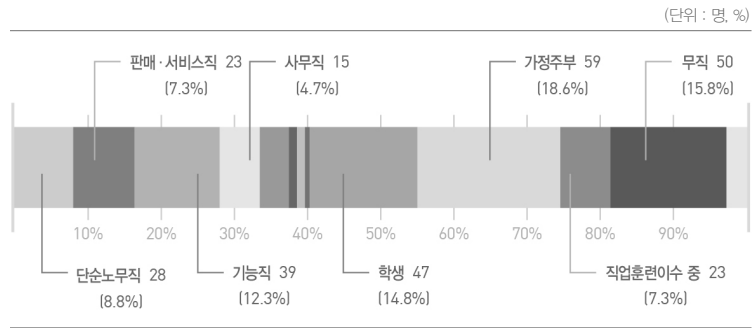
〈그림 II-5〉

북한이탈주민 밀집 지역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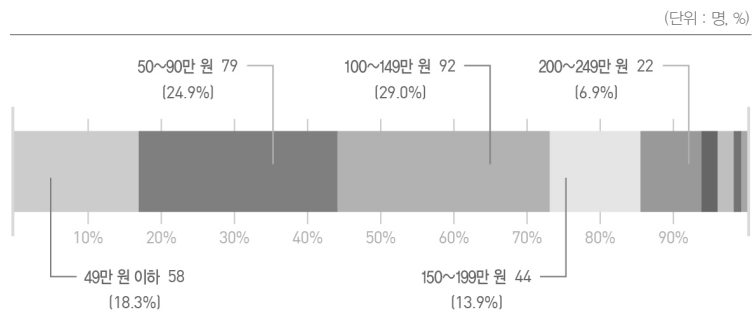
현재 직업을 살펴보면, 가정주부가 59명(18.6%)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가 50명(15.8%), 학생이 47명(14.8%), 기능직이 39명(12.3%)의 순서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단순노무직이 28명(8.8%), 판매·서비스직이 23명(7.3%), 직업훈련이수 중이라는 응답이 23명(7.3%), 사무직이 15명(4.7%), 전문·관리직이 11명(3.5%), 자영업이 8명(2.5%)으로 나타났다. 농·수·축산업 종사자나 사회단체 활동가, 통일교육 강사 등은 각각 1~2명에 그쳤다. 이후 분석에서는 농·수·축산업 종사자나 사회단체 활동가, 통일교육 강사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II-6〉
응답자 직업 분포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100~149만 원이라는 응답이 92명 (29.0%)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0~99만 원이라는 응답이 79명 (24.9%), 49만 원 이하라는 응답이 58명(18.3%)으로 나타나 전체의 72.2%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가구 월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0~299만 원에 해당하는 응답은 10명(3.2%)이었고, 300~349만 원에 해당하는 응답도 10명(3.2%)이었다. 350~399만 원이라는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으며, 4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이후 분석에서는 349만 원까지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II-7〉
응답자 가구 월평균 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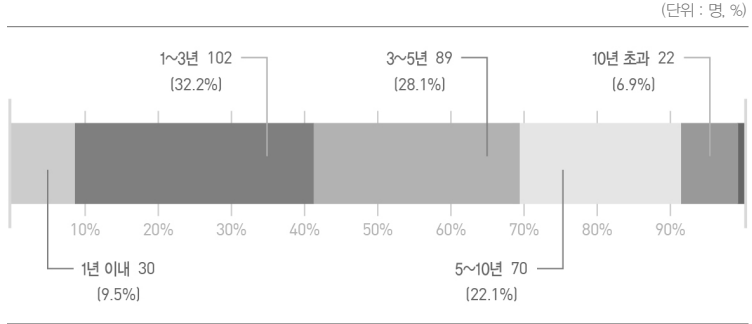


남한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3년이라는 응답이 102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3~5년이라는 응답이 89명(28.1%), 5~10년이라는 응답이 70명(22.1%)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라는 응답은 30명

(9.5%), 10년을 넘는다는 응답은 22명(6.9%)로 나타났다. 응답자 60% 이상이 1~5년 사이의 남한 거주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8〉

응답자 남한 거주기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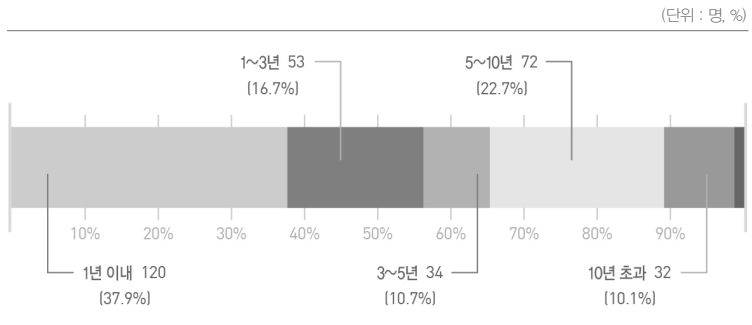


이들의 남한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해보면, 최솟값은 6개월에서 최댓값은 201개월(16년 9개월)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전체 평균은 53.50개월(4년 6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해외체류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내라는 응답이 120명(37.9%)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10년이라는 응답이 72명(22.7%), 1~3년이라는 응답이 53명(16.7%), 3~5년이라는 응답이 34명(10.7%), 10년 초과라는 응답이 32명(10.1%)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의 해외체류기간을 겪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5~10년이라는 응답도 비교적 많았다는 점에서 해외체류기간이 길어질 경우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9〉

응답자 해외체류기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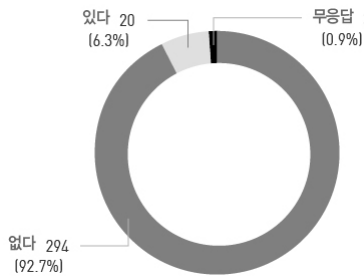
이들의 해외체류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해보면, 최솟값은 0에서 최댓값은 293개월(24년 5개월)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전체 평균은 45.74개월(3년 10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끝으로 통일교육 강사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응답자를 나누어 보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명(6.3%)으로 나타났고,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294명(92.7%)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3명(0.9%)이었다.

〈그림 II-10〉

응답자 통일교육 강사
경험 분포

(단위 : 명, %)



다. 설문내용 분석 결과

1) 남북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습요구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이나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학습요구가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응답 결과를 리코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I-4>와 같다.

〈표 II-4〉

남북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습요구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5단 척도점수 (표준편차)
남한 역사를 잘 알고 있음	25	90	142	43	17	317	2.80
	7.9%	28.4%	44.8%	13.6%	5.4%	100.0%	(.955)
남한 역사를 알면 적응에 도움이 됨	4	22	78	133	80	317	3.83
	1.3%	6.9%	24.6%	42.0%	25.2%	100.0%	(.929)
남한 경제발전 과정 알고 싶음	13	23	62	124	94	316	3.83
	4.1%	7.3%	19.6%	39.2%	29.7%	100.0%	(1.063)
남한 정치민주화 과정 알고 싶음	18	34	98	87	78	315	3.55
	5.7%	10.8%	31.1%	27.6%	24.8%	100.0%	(1.143)
남한 사람의 일상생활 알고 싶음	3	18	96	118	80	315	3.81
	1.0%	5.7%	30.5%	37.5%	25.4%	100.0%	(.916)
북한의 전반적 특징 설명 가능	8	22	113	95	77	315	3.67
	2.5%	7.0%	35.9%	30.2%	24.4%	100.0%	(1.003)
남한 사람의 북한에 대한 생각 알고 싶음	13	24	94	103	83	317	3.69
	4.1%	7.6%	29.7%	32.5%	26.2%	100.0%	(1.067)

위의 결과를 보면, ‘남한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142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90명(28.4%)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2.80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의 역사에 대해 잘 알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133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80명(25.2%)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3.8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한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남한의 역사를 잘 알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한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124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94명(29.7%)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도 3.8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 정치민주화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98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87명(27.6%)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도 3.55점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정치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궁금함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나 경제발전에 대한 요구보다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싶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118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96명(30.5%)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도 3.8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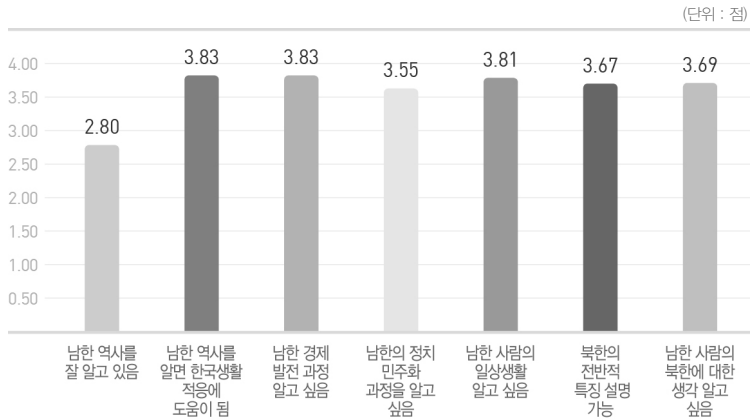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113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95명(30.2%)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도 3.67점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북한에 거주하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103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94명(29.7%)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도 3.69점으로 나타났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각 문항별 결과를 상호 비교해보기로 한다. 아래의 <그림 II-11>은 각 문항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5단 척도점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11>

남북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습요구 점수 비교



문항별로 비교해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남한 경제 발전 과정을 알고 싶다’는 응답으로 3.83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한 역사를 알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도 미세한 차이로 3.83점의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남한의 정치민주화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응답은 평균 이상이기는 했지만 다른 문항에 비해서는 점수가 낮았다. 종합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이나 남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싶은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남한의 정치민주화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요구는 이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다. 남한 역사를 잘 알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남한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만큼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 문항들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의 배경변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많은 수의 문항에 대한 결과를 모두 보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차분석이나 변량분석 검증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기로 한다. 아래의 <표 II-5>는 각 문항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변인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5>

남북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습요구와 통계적 관련이 있는 배경변인

구분	성별	연령대	북한 학력	거주지	밀집 지역 거주	직업	가구 월 소득	남한 거주 기간	해외 체류 기간	강사 경험
남한 역사를 잘 알고 있음	●▲		●▲	●▲		●▲				
남한 역사를 알면 적응에 도움이 됨								▲		
남한 경제발전 과정 알고 싶음				●▲		▲		▲	●▲	●▲
남한 정치민주화 과정 알고 싶음	●▲			●▲		▲				▲
남한사람의 일상 생활 알고 싶음							●▲			
북한의 전반적 특징 설명 가능	●▲	●▲	●▲							
남한사람의 북한에 대한 생각 알고 싶음					●				●▲	

● : 교차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alpha < 0.05$)
 ▲ : 변량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alpha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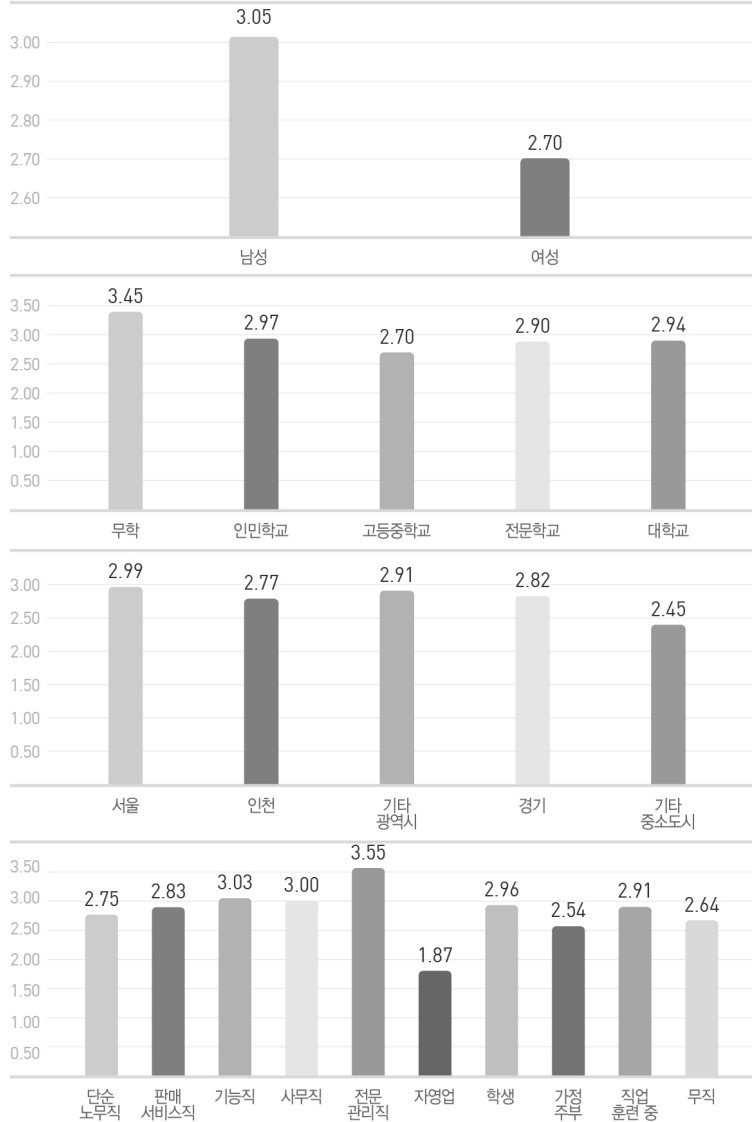
먼저 ‘남한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 북한 학력, 거주지, 직업 등이었다. 다음의 <그림 II-12>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의 점수가 3.05점으로 여성의 2.70점보다 높았으며, 북한에서의 학력에 따라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들은 학력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탈북하게 되어 남한에서 공부를 오래한 학생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종결교육을 마쳤다고 할 수 있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서울 지역 거주자들이 2.99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경기도를 제

외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2.45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이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들이 1.87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정주부들 또한 2.54점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그림 II-12〉

‘남한 역사를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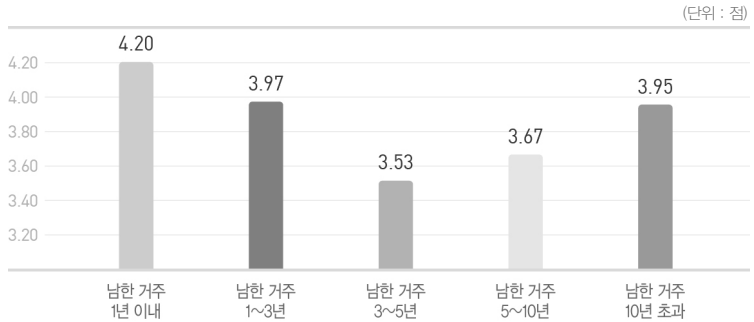
(단위 : 점)



‘남한의 역사에 대해 잘 알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차이를 보인 변인은 남한 거주기간이었다. 남한 거주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10년 이상인 응답자들에게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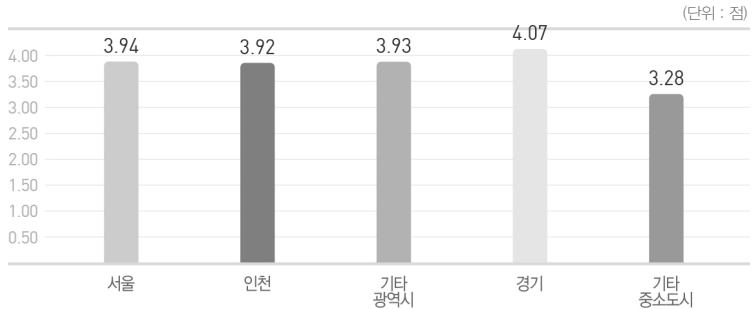
‘남한 역사를 알면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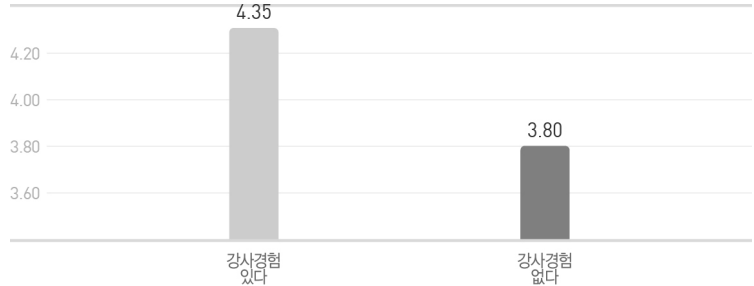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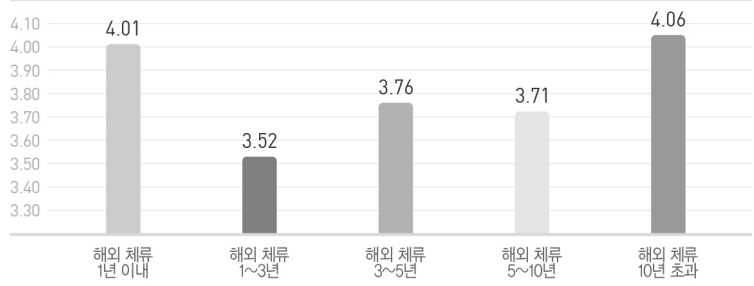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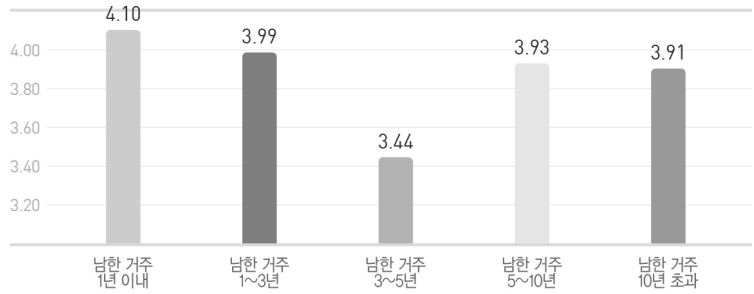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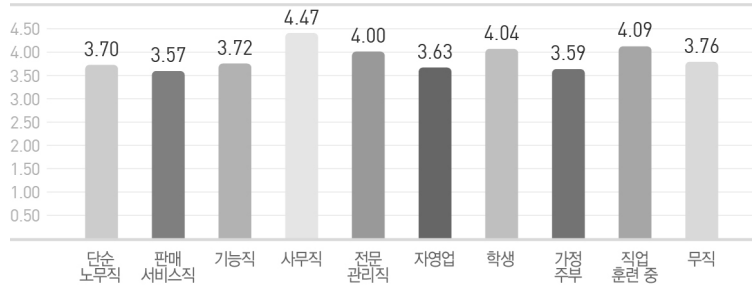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 차이를 보인 변인은 거주지와 직업, 남한 거주기간, 해외체류기간, 통일교육 강사활동 여부였다. 경기지역 거주자들이 4.07점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에 경기를 제외한 중소도시 거주자들은 3.28점으로 관심이 낮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직이 4.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판매·서비스직이 3.5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4〉

‘남한의 경제 발전에 대해 알고 싶다’에 대한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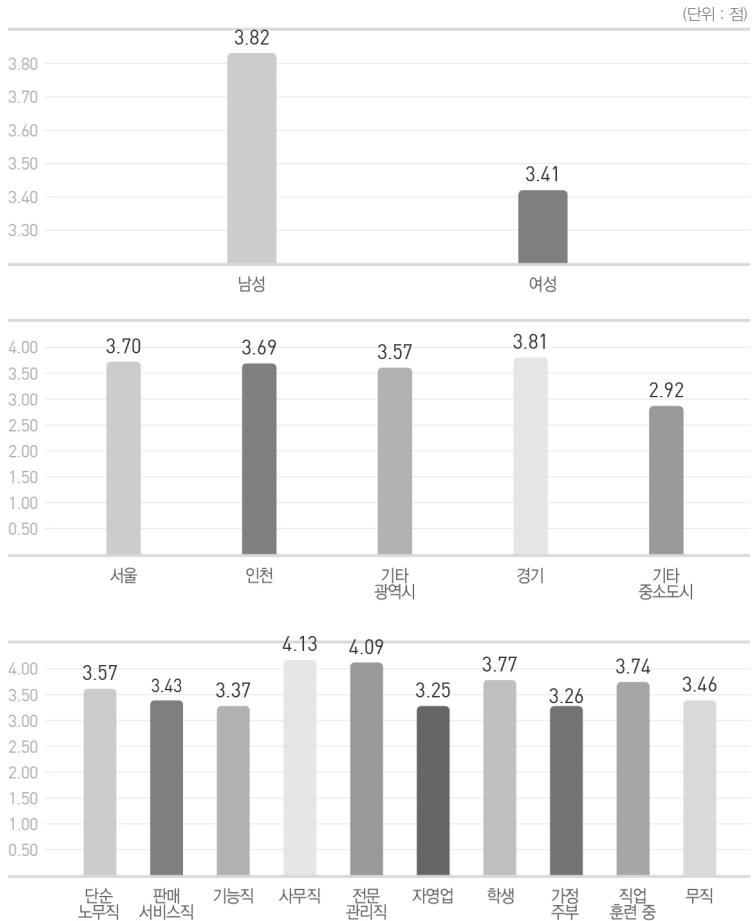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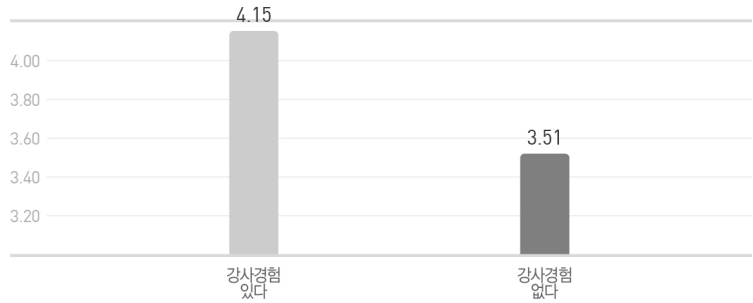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한의 정치민주화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과 거주지, 직업과 강사경험이었다. 성별로는

남성들이 3.82점으로 여성들의 3.41점에 비해서 높았다. 경기지역 거주자들이 3.81점으로 정치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에 경기를 제외한 중소도시 거주자들은 2.92점으로 관심이 낮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직이 4.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이 3.2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남한의 정치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 II-15>

'남한의 정치민주화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에 대한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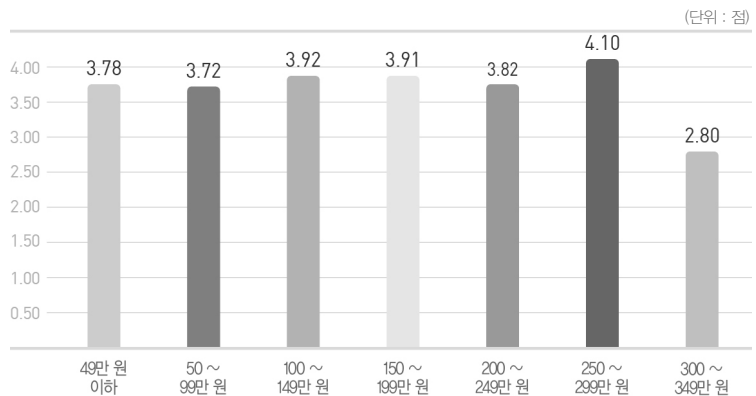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 차이를 보인 변인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남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비교적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250~299만 원대까지는 4.10점으로 가장 높아졌던 점수가 300만 원 이상이 되는 집단에서는 2.80점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16〉

‘남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싶다’에 대한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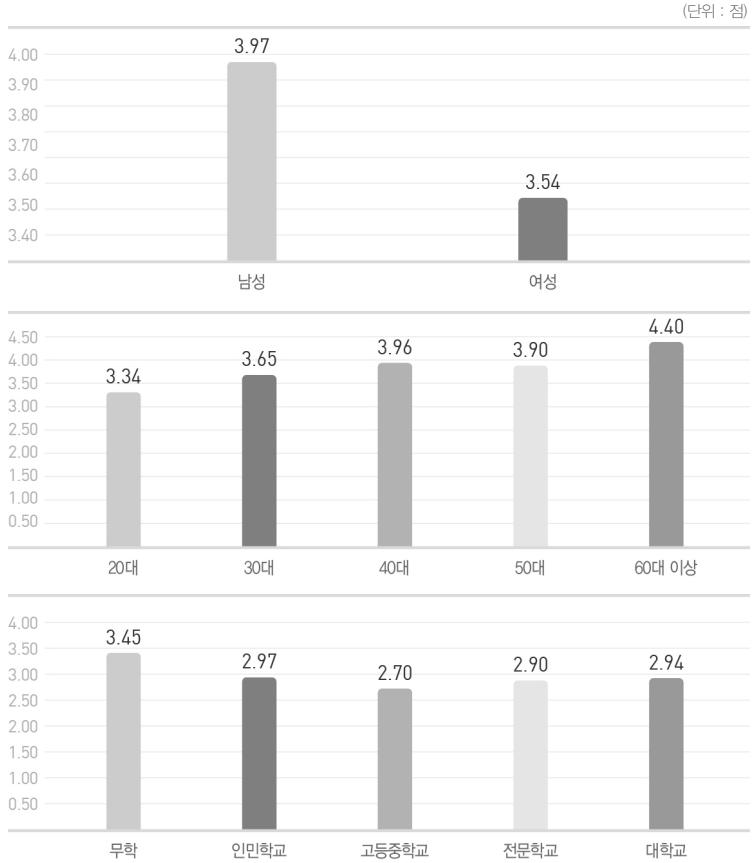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과 연령대와 북한학력이었다. 성별로는 남성들이 3.97점으로 여성들의 3.54점에 비해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북한에 대해 설명해줄 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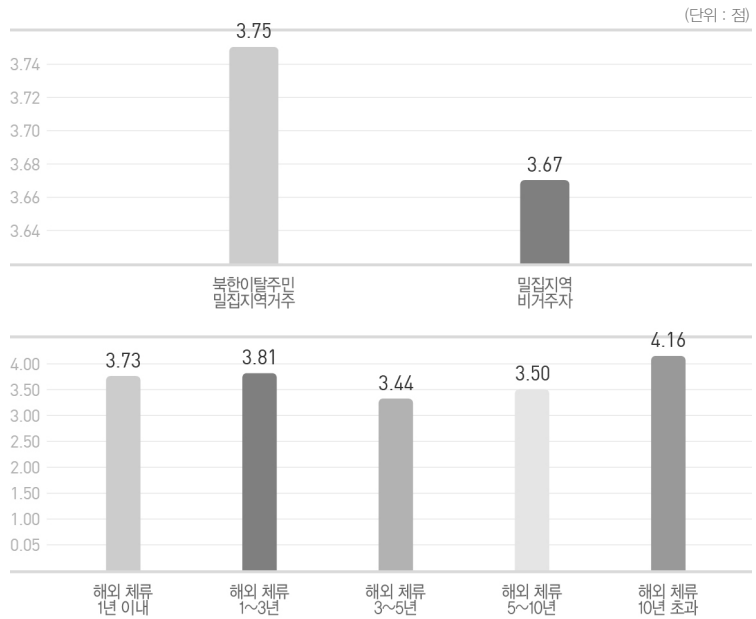
‘북한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분석



다음으로 ‘남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알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 차이를 보인 변인은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거주 여부와 해외체류기간이었다. 주변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해외체류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점으로 매우 높았다. 해외체류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비교적 긴 집단에서 남한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8〉

'남한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알고 싶다'에 대한 응답 분석



2)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방식 및 문화 차이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람들과의 생활에서 겪는 사고방식(문화)의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응답 결과를 리코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방식(문화)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II-6>과 같다.

〈표 II-6〉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방식(문화)의 차이 인식

구분	전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른 편이다	매우 다르다	합계	5단 척도점수 (표준편차)
사회 생활	6	21	68	130	92	317	3.89
	1.9%	6.6%	21.5%	41.0%	29.0%	100.0%	(.964)
남녀 관계	5	29	54	151	78	317	3.85
	1.6%	9.1%	17.0%	47.6%	24.6%	100.0%	(.950)

구분	전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다른 편이다	매우 다르다	합계	5단 척도점수 (표준편차)
부모-자녀 관계	9	35	77	131	65	317	3.66
	2.8%	11.0%	24.3%	41.3%	20.5%	100.0%	(1.015)
이웃과의 관계	9	19	85	126	78	317	3.77
	2.8%	6.0%	26.8%	39.7%	24.6%	100.0%	(.980)

위의 결과를 보면, ‘사회생활(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에서 사고방식의 차이를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른 편이라는 응답이 130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다르다는 응답이 92명(29.0%)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3.89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에서 사고방식이나 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녀관계(배우자, 이성친구, 이성동료와의 관계 등)에서 사고방식의 차이를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편이라는 응답이 151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다르다는 응답이 78명(24.6%)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3.85점으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녀관계에서도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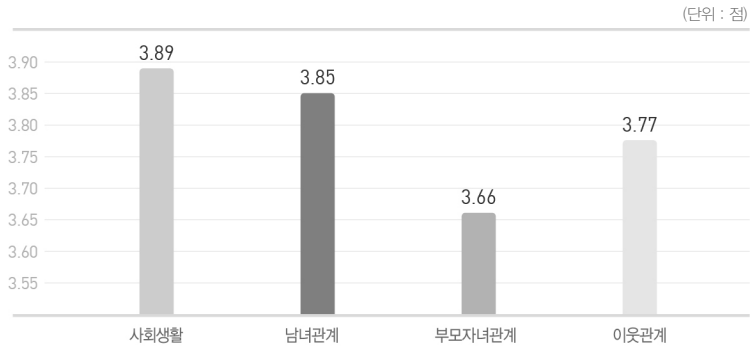
‘부모-자녀관계(다른 세대와의 관계)에서 사고방식의 차이를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편이라는 응답이 131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77명(24.3%)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3.66점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부모-자녀관계에서도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다른 관계에 대한 응답에 비교해볼 때 그 차이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고방식의 차이를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편이라는 응답이 126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85명(26.8%)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3.77점으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번에는 각 문항별 결과를 상호 비교해보기로 한다. 아래의 <그림 II-19>는 각 문항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5단 척도점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19>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방식 차이에 대한 인식 점수 비교



문항별로 비교해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사회생활에서 사고방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응답으로 3.89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녀관계에서 사고방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응답도 3.85점의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이웃관계에서의 차이(3.77)나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차이(3.66)도 비교적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앞서의 사회생활이나 남녀관계에서의 차이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 문항들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의 배경변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교차분석이나 변량분석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기로 한다. 다음의 <표 II-7>은 각 문항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변인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7〉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 방식 차이와 통계적 관련이 있는 배경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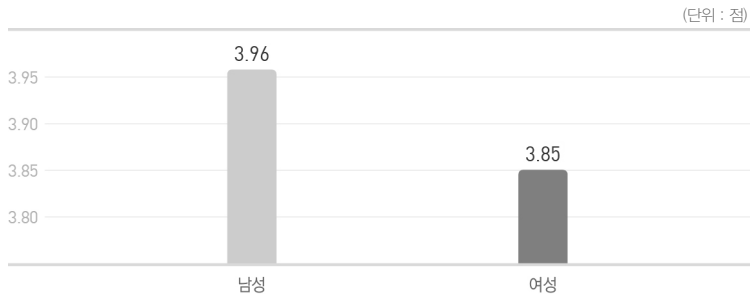
구분	성별	연령대	북한 학력	거주지	밀집 지역 거주	직업	가구 월소득	남한 거주 기간	해외 체류 기간	강사 경험
사회 생활	▲	●	●▲	●▲				●		
남녀 관계				●▲				▲	▲	
부모-자녀 관계	▲			●▲						
이웃과의 관계				●▲						

● : 교차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p<.05)
▲ : 변량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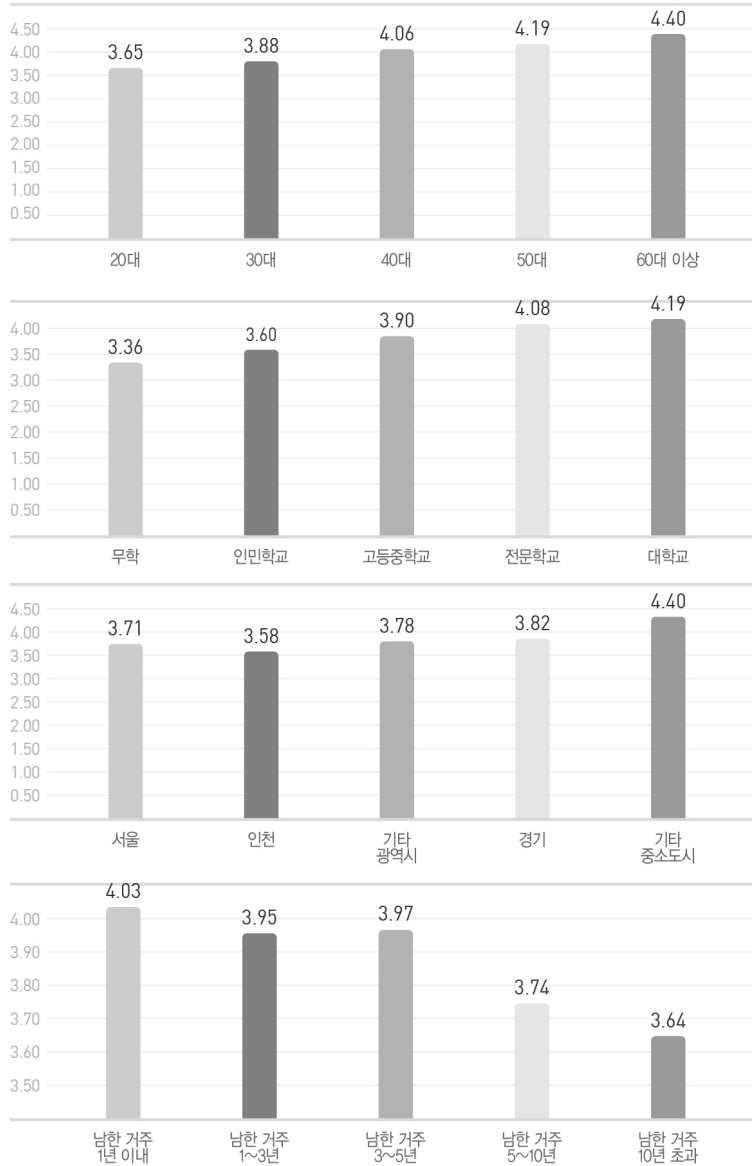
먼저 사회생활에서의 차이를 인식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 연령대, 북한 학력, 거주지, 남한 거주기간 등의 변인이었다. 아래의 〈그림 II-20〉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의 점수가 3.96점으로 여성의 3.85점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생활에서의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60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은 4.40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북한에서의 학력에 따라서는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에서의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인천지역의 거주자들이 3.58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4.40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남한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에서의 차이를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0〉

‘사회생활에서 사고방식 차이 인식’에 대한 응답 분석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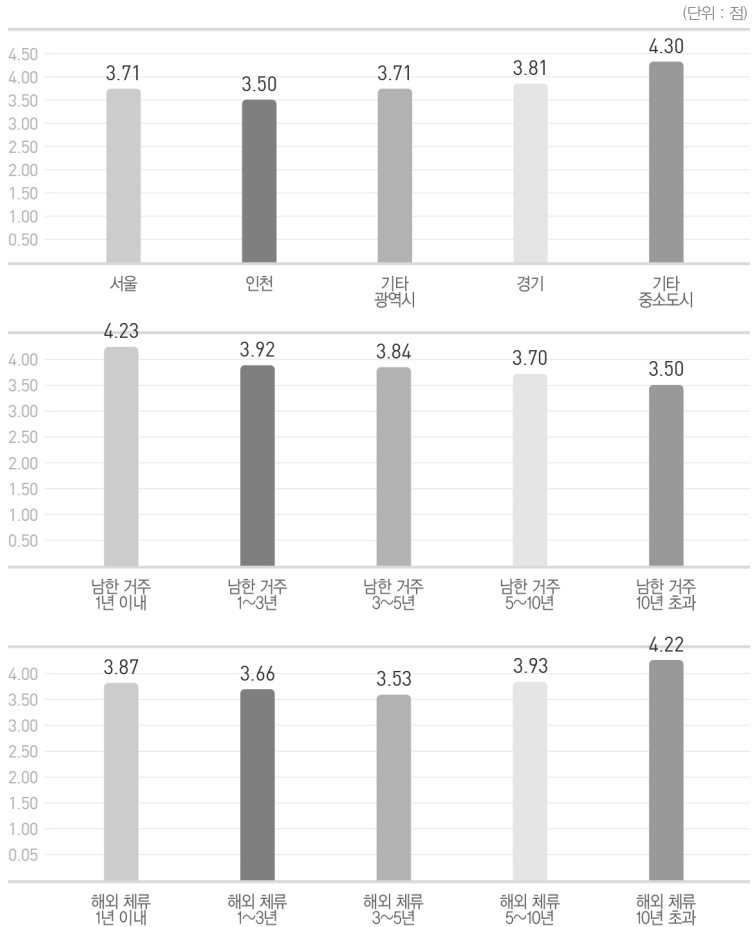


남녀관계에서의 차이를 인식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 변인은 거주지, 남한 거주기간, 해외체류기간이었다. 다음의 <그림 II-21>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 지역 거주자의 점수가 3.50점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4.30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남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남녀관계에서의 차이를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체류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선행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5년 이상 해외체류기간이 있었던 사람들이 남녀관계에서의 차이를 보다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1〉

‘남녀관계에서 사고방식 차이 인식’에 대한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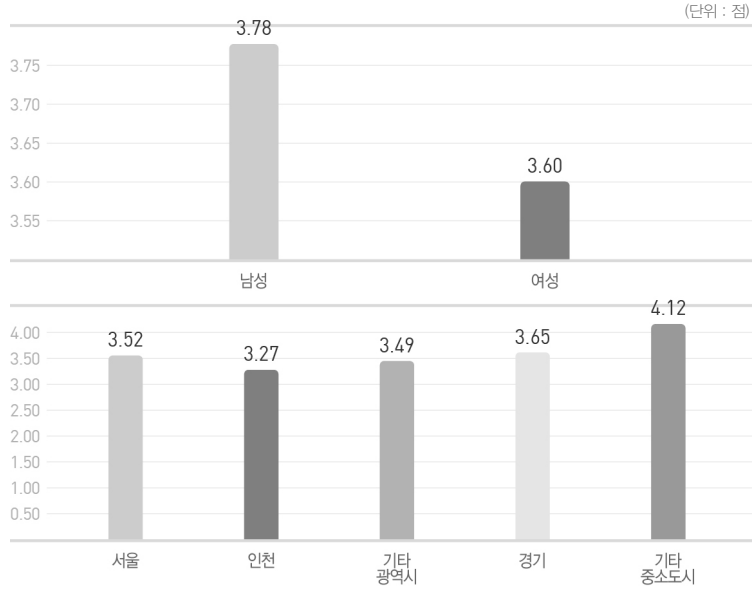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차이를 인식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과 거주지 변인이었다. 다음의 〈그림 II-22〉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들이 3.78점으로 차이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았고, 여성들

이 3.60점으로 낮았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인천 지역 거주자의 점수가 3.27점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4.12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그림 II-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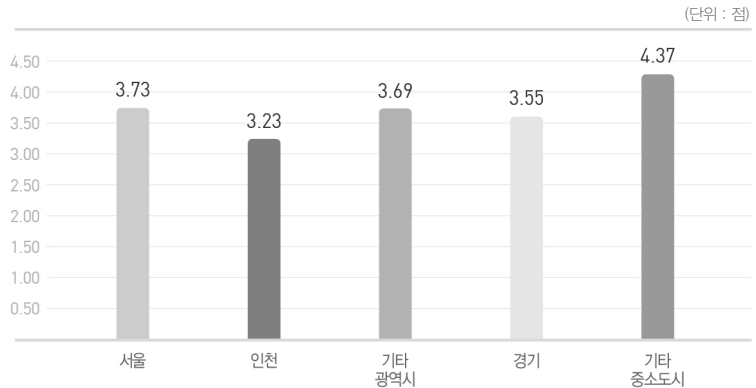
‘부모-자녀관계에서 사고방식 차이 인식에 대한 응답 분석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차이를 인식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 변인은 거주지 변인뿐이었다. 아래의 〈그림 II-23〉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 지역 거주자의 점수가 3.23점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4.3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그림 II-23〉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고방식 차이 인식에 대한 응답 분석



종합해보면, 남한사람들과의 사고방식에서의 차이를 인식하는 비율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사고방식에서의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한 사회에서의 갈등 극복의 어려움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갈등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응답 결과를 리코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의 갈등 극복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II-8>과 같다.

<표 II-8>

남한 사회에서의 갈등 극복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합계	5단 척도점수 (표준편차)
사회생활	22	68	97	86	44	317	3.20
	6.9%	21.5%	30.6%	27.1%	13.9%	100.0%	(1.133)
남녀관계	29	93	104	58	33	317	2.91
	9.1%	29.3%	32.8%	18.3%	10.4%	100.0%	(1.120)
부모-자녀 관계	46	110	91	54	14	317	2.62
	14.5%	34.7%	28.7%	17.0%	4.4%	100.0%	(1.068)
이웃과의 관계	40	96	92	52	37	317	2.84
	12.6%	30.3%	29.0%	16.4%	11.7%	100.0%	(1.191)

위의 결과를 보면, 사회생활(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에서의 갈등 극복이 얼마나 어려우냐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97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86명(27.1%)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는 3.20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극복이 약간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녀관계(배우자, 이성친구, 이성동료와의 관계 등)에서의 갈등 극복이 얼마나 어려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104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어렵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93명(29.3%)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2.91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녀관계에서는 비교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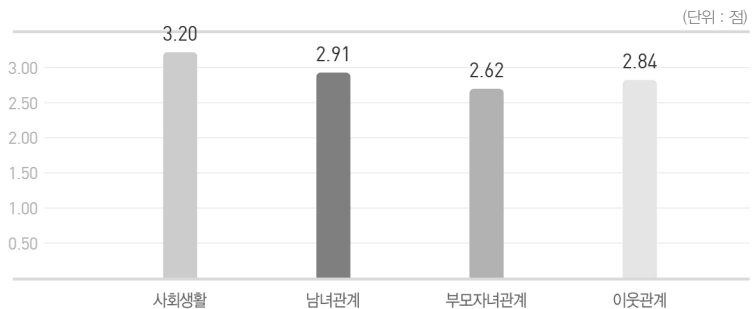
‘부모-자녀관계(다른 세대와의 관계)에서의 갈등 극복이 얼마나 어려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110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91명(28.7%)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2.6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부모-자녀관계에서는 그다지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 극복이 얼마나 어려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96명(30.3%)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92명(29.0%)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2.84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남한 사람들과의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번에는 각 문항별 결과를 상호 비교해보기로 한다. 아래의 <그림 II-24>는 각 문항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5단 척도점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24>

남한 사회에서의 갈등 해결 어려움에 대한 인식 점수 비교



문항별로 비교해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극복에 대한 어려움으로 3.20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나머지 세 영역에 대해서는 3점 미만으로 나타나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대해서는 2.62점으로 나타나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 문항들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의 배경변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교차분석이나 변량분석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기로 한다. 아래의 <표 II-9>는 각 문항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변인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9>

남한 사회에서의 갈등 극복의 어려움과 통계적 관련이 있는 배경변인

구분	성별	연령대	북한 학력	거주지	밀집 지역 거주	직업	가구 월 소득	남한 거주 기간	해외 체류 기간	강사 경험
사회생활		▲	●	●▲					▲	▲
남녀관계		●▲	●	●▲					●▲	
부모-자녀 관계			▲					●		
이웃과의 관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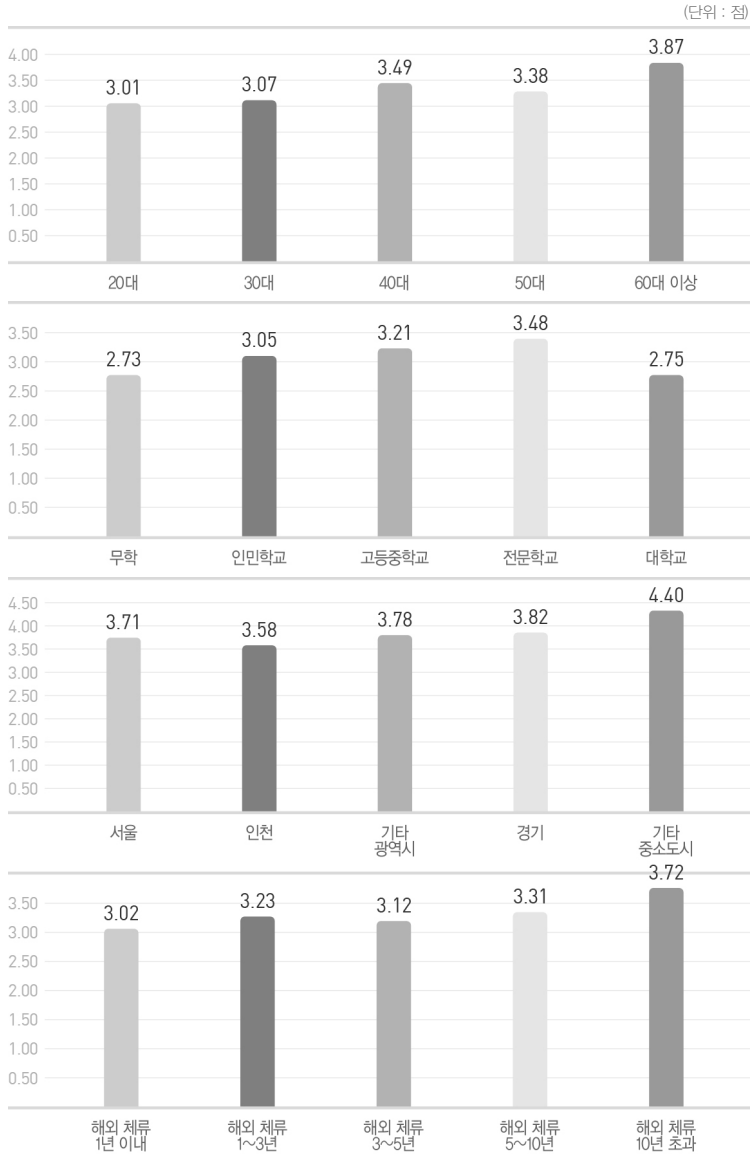
● : 교차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p<.05)
▲ : 변량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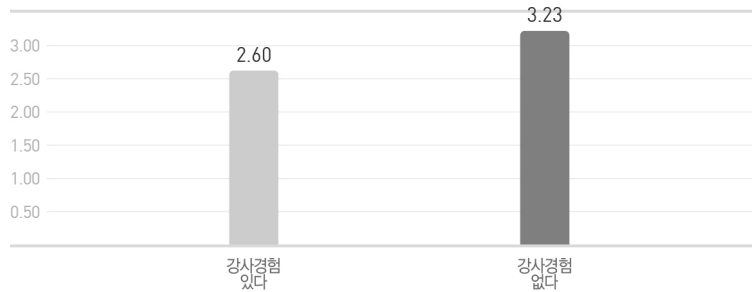
먼저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극복이 어렵다는 문항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연령대, 북한 학력, 거주지, 해외체류기간, 강사경험 등의 변인이었다. 다음의 <그림 II-25>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극복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북한에서의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학교 졸업자들이 3.48점으로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극복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들은 2.73점으로 어려움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제외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4.40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인천시의 거주자들이 3.58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체류기간이 길수록 사회생활에서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며, 강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갈등 해결에 대한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있었다.

〈그림 11-25〉

'사회생활에서 갈등 해결 어려움'에 대한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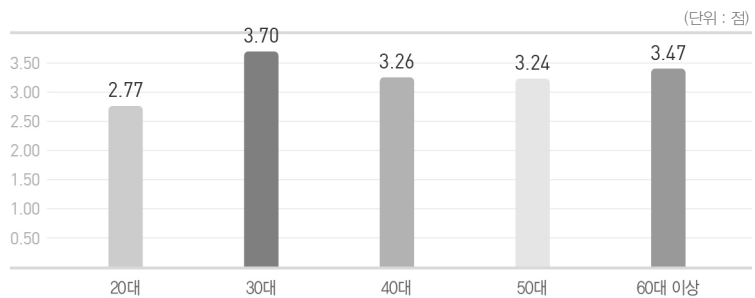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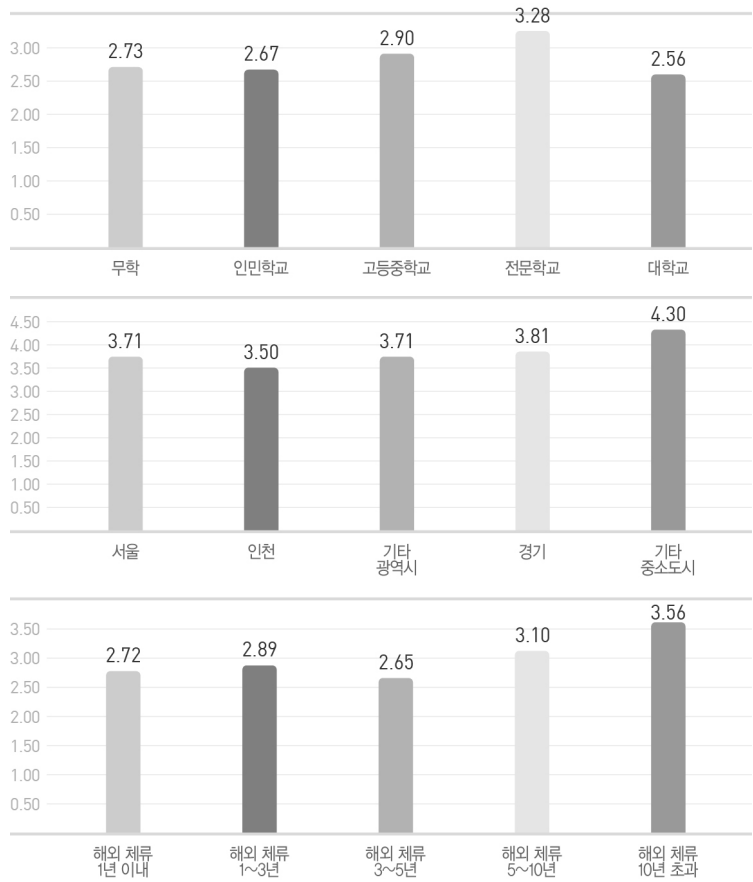


‘남녀관계에서의 갈등 극복이 어렵다’는 문항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연령대, 북한 학력, 거주지, 해외체류기간 변인이었다. 아래의 <그림 II - 26>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 연령에 해당하는 30대가 3.70점으로 가장 갈등 극복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20대는 2.77점으로 가장 낮았다. 북한 학력에 있어서는 전문학교 졸업자가 3.28점으로 가장 갈등 극복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대학교 졸업자가 2.56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를 제외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4.30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인천시의 거주자들이 3.50점으로 가장 낮았다. 해외체류기간이 길수록 남녀관계에서의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교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 - 26>

‘남녀관계에서 갈등 해결 어려움’에 대한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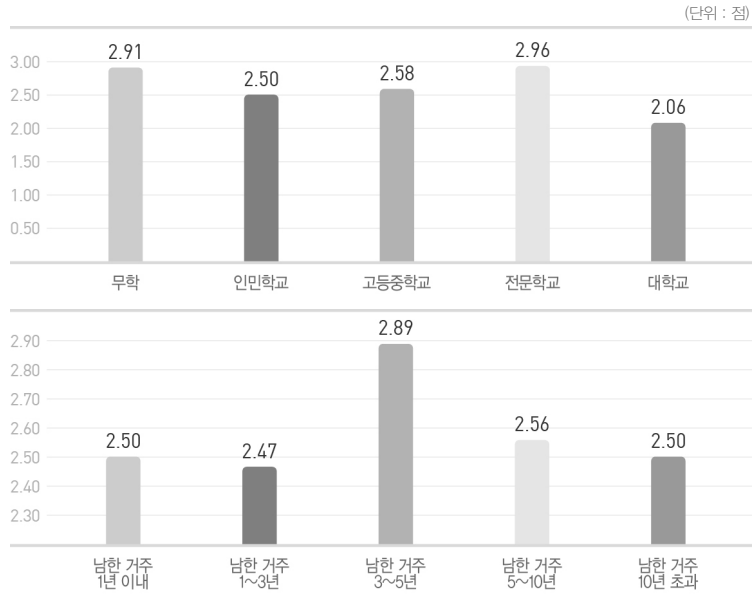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갈등 극복이 어렵다’는 문항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 변인은 북한 학력과 남한 거주기간 변인이었다. 다음의 <그림 II-27>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학교 졸업자들이 2.96점으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비교적 느끼고 있었으며, 대학교 졸업자들은 2.06점으로 거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남한 거주기간이 3~5년인 응답자들이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비교적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3점 이하의 응답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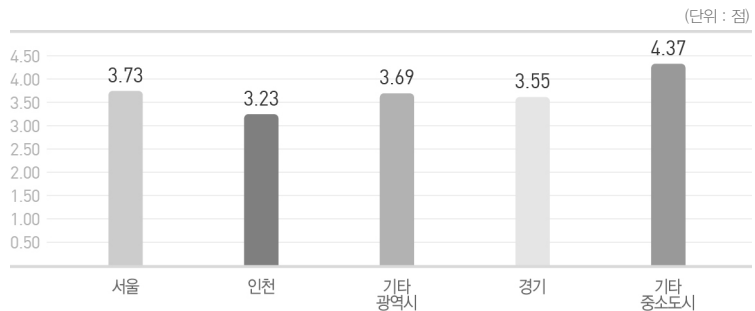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 해결 어려움’에 대한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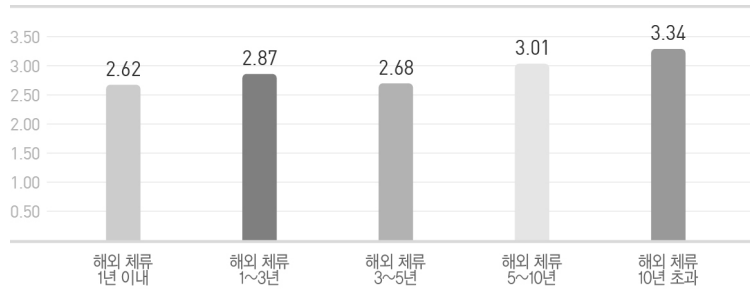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극복이 어렵다’는 문항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 변인은 거주지와 해외체류기간 변인이었다. 아래의 〈그림 II-28〉에서 볼 수 있듯이 기타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해외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II-28〉

‘이웃과의 관계에서 갈등 해결 어려움’에 대한 응답 분석





종합해보면, 남한 사회에서의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는 전문학교 출신들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갈등 해결에서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외체류기간이 5년을 넘어서는 사람들일수록 여러 가지의 갈등 해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통일에 대한 생각

가) 북한에 대한 인식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여러 문항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먼저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아래의 <표 II-10>과 같다.

<표 II-10>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도와야 할 지원 대상	힘을 합칠 협력 대상	선의를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안전의 위협 대상	무응답	합계
41	165	4	19	67	21	317
12.9%	52.1%	1.3%	6.0%	21.1%	6.6%	100.0%

북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165명(52.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67명(21.1%), 도와야 할 지원 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41명(12.9%)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의견

은 19명(6.0%),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보는 의견은 4명(1.3%)으로 비교적 적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북한을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라는 응답도 20%를 넘었다는 점에서 북한을 다양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 문항은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기존 연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12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¹⁾에서 사용된 북한에 대한 인식 문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2012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모두 북한이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 주민 모두 남북한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북한이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은 북한이탈주민(52.1%)이 남한 주민(47.1%)보다 약간 높게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과 협력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두 번째 응답 순위에서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21.1%로 2위를 나타낸 반면, 남한 주민들은 경계 대상이라는 응답(21.3%)이 2위를 차지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과 도발위협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적대 대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한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위협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국력 우위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북한을 적대 대상이라고 보기 보다는 경계 대상(21.3%)으로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1) 강원택 외, 『통일의식 조사 2012』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표 II-11〉

2012년 통일인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합계
15.8%	47.1%	4.8%	21.3%	10.9%	100.0%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북한이탈주민 주변 거주 여부와 거주지, 직업 등의 변인이었다. 아래의 〈표 II-1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도시 거주자와 단순노무직, 전문직, 학생 집단에서 북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고,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이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지방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자영업, 가정주부의 경우에 북한을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표 II-12〉

북한에 대한 인식의
집단별 분석 결과

(단위: 명)

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가		도와야 할 지원 대상	힘을 합칠 협력 대상	선의를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안전의 위협 대상	합계
북한 이탈 주민 밀집 지역 거주	그렇다	34	118	3	13	43	211
		16.1%	55.9%	1.4%	6.2%	20.4%	100.0%
	아니다	2	20	0	2	15	39
		5.1%	51.3%	0.0%	5.1%	38.5%	100.0%
	모른다	5	23	1	4	8	41
		12.2%	56.1%	2.4%	9.8%	19.5%	100.0%
거 주 지	서울	11	55	1	8	14	89
		12.4%	61.8%	1.1%	9.0%	15.7%	100.0%
	인천	2	20	0	0	3	25
		8.0%	80.0%	0.0%	0.0%	12.0%	100.0%
	인천제외 광역시	4	27	0	2	12	45
		8.9%	60.0%	0.0%	4.4%	26.7%	100.0%
	경기	11	43	2	2	17	75
		14.7%	57.3%	2.7%	2.7%	22.7%	100.0%
	경기제외 중소도시	13	20	1	7	21	62
		21.0%	32.3%	1.6%	11.3%	33.9%	100.0%

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가		도와야 할 지원 대상	힘을 합칠 협력 대상	선의를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안전의 위협 대상	합계
직업	단순 노무직	1 4.3%	18 78.3%	0 0.0%	1 4.3%	3 13.0%	23 100.0%
	판매 서비스직	4 19.0%	9 42.9%	0 0.0%	0 0.0%	8 38.1%	21 100.0%
	기능직	5 13.5%	20 54.1%	1 2.7%	0 0.0%	11 29.7%	37 100.0%
	사무직	2 13.3%	8 53.3%	0 0.0%	1 6.7%	4 26.7%	15 100.0%
	전문 관리직	1 10.0%	7 70.0%	0 0.0%	1 10.0%	1 10.0%	10 100.0%
	자영업	0 0.0%	3 37.5%	0 0.0%	2 25.0%	3 37.5%	8 100.0%
	학생	5 11.1%	34 75.6%	0 0.0%	2 4.4%	4 8.9%	45 100.0%
	가정주부	10 17.2%	25 43.1%	1 1.7%	5 8.6%	17 29.3%	58 100.0%
	직업훈련 이수중	2 10.5%	10 52.6%	2 10.5%	0 0.0%	5 26.3%	19 100.0%
	무직	7 15.2%	25 54.3%	0 0.0%	5 10.9%	9 19.6%	46 100.0%

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I-13>과 같다. 74.8%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거주하였던 경험 때문에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남한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당연시하던 인

식이 약해지고 통일의 현실적 이유를 생각하게 된 결과로 보인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의 다양한 견해에 익숙해지면서 통일에 대해서도 당위성보다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13〉

(단위 : 명)

통일의 필요성 응답 분석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5단 척도점수 (표준편차)
통일의 필요성	2 0.6%	6 1.9%	36 11.4%	36 11.4%	237 74.8%	317 100.0%	4.58 (.814)

〈표 II-14〉

(단위 : 명)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통일 필요성 응답 비교

통일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남한 거주 기간	1년 이내			2 6.7%	2 6.7%	26 86.7%	30 100.0%
		1~3년		2 2.0%	11 10.8%	9 8.8%	80 78.4%
	3~5년			1 1.1%	8 9.0%	9 10.1%	71 79.8%
		5~10년	2 2.9%		11 15.7	12 17.1%	45 64.3%
	10년 초과			3 13.6%	3 13.6%	4 18.2%	12 54.5%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는 아니었지만, 직전의 문항, 즉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음의 〈표 II-15〉를 보면,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명은 모두 북한을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6명 중 2명은 북한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고, 4명은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표 II-15〉

통일 필요성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단위 : 명)

통일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북한에 대한 인식	도외야 할 지원 대상			4	4	33	41
				9.8%	9.8%	80.5%	100.0%
	힘을 합칠 협력 대상			9	17	139	165
				5.5%	10.3%	84.2%	100.0%
	선언의 경쟁 대상					4	4
						100.0%	100.0%
	경계 대상		2	7	4	6	19
		10.5%	36.8%	21.1%	31.6%	100.0%	
안전의 위협 대상	2	4	16	10	35	67	
	3.0%	6.0%	23.9%	14.9%	52.2%	100.0%	
남한 거주 기간	1년 이내			2	2	26	30
				6.7%	6.7%	86.7%	100.0%
	1~3년		2	11	9	80	102
			2.0%	10.8%	8.8%	78.4%	100.0%
	3~5년		1	8	9	71	89
			1.1%	9.0%	10.1%	79.8%	100.0%
5~10년	2		11	12	45	70	
	2.9%		15.7	17.1%	64.3%	100.0%	
10년 초과		3	3	4	12	22	
		13.6%	13.6%	18.2%	54.5%	100.0%	

통일 필요성을 묻는 문항 역시 기존의 타 연구 결과와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척도로 구성된 문항이었다. 이전의 남한 주민 대상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아래의 〈표 II-16〉과 같다.

〈표 II-16〉

2012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단위 :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통일의 필요성	4.3%	17.2%	21.6%	30.3%	26.8%	100.0%

두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간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2%(다소 필요 11.4%, 매우 필요 74.8%)인 반면, 남한 주민의 경우에는 57.1%(다소 필요 30.3%, 매우 필요 26.8%)였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은 2.5%(전혀 불필요 0.6%, 별로 불필요 1.9%)가 응답한 반면, 남한 주민은 21.5%(전혀 불필요 4.3%, 별로 불필요 17.2%)가 응답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결과 통일의 필요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게 나타났다.

다)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II-17>과 같다. 62.0%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역시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17>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응답 분석

(단위 : 명)

구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약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합계	5단 척도점수 (표준편차)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3 0.9%	11 3.5%	45 14.2%	61 19.3%	196 62.0%	316 100.0%	4.38 (.920)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8>과 같다. 이 조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경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데에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는 응답이 62.0%에 달하지만, 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7.2%에 불과하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는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4.4%에 불과했지만, 남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35.3%에 달했다.

〈표 II-18〉

2012년 청소년 통일
의식 조사 결과
(통일교육협의회)

구분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약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합계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3.9%	31.4%	57.5%	7.2%	100.0%

라) 통일의 기대 이익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II-19〉와 같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153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5명(23.7%)으로 뒤를 이었다. 통일의 기대 이익 역시 배경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19〉

통일의 기대 이익 응답
분석

(단위: 명)

구분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합계	5단 척도점수 (표준편차)
통일의 기대 이익	7 2.2%	22 7.0%	59 18.7%	75 23.7%	153 48.4%	316 100.0%	4.09 (1.070)

다음의 〈표 II-20〉의 2012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역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이 자신에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48.4%에 달했고,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9.2%에 그쳤다. 이와는 달리,

남한 주민들은 통일이 자신에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2%에 그쳤으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74.0%나 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경제력 향상 등으로 인해 자신에게 직접적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로 인해 한민족과 국가 전체의 집합적 이익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이익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책임이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현재보다 사회경제적 삶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한 주민들은 통일의 이익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지니고 있다. 남한 주민들은 통일로 인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정치사회적 후유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더욱이 남한 주민들은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은 통일로 인해 국력향상과 같은 집합적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20〉

2012년 통일인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단위: 명)

구분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합계
통일의 기대 이익	20.5%	53.5%	21.8%	4.2%	100.0%

마)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I-21〉과 같다. 당초 설문지에는 가장 큰 이유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많은 수

의 응답자가 중복 응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중복 응답 형태로 각 문항에 대한 비율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체의 합이 100%를 초과하게 된다.

〈표 II-21〉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중복 허용)

(단위: 명)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 고통 해소	전쟁 위험 해소	북한 주민도 잘 살도록	선진국이 되기 위해	기타
103	73	58	68	71	4
32.5%	23.0%	18.3%	21.5%	22.4%	1.3%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통일의 이유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으로 103명(32.5%)이 응답해 주었다. 다음으로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3명(23.0%),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1명(22.4%), 북한 주민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8명(21.5%),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8명(18.3%)의 순서로 나타났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당위적인 응답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이유들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응답이 도출되었다.

기존 남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의 비교를 위해서 단일 응답의 형태로 북한이탈주민의 결과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22〉와 같다. 둘 이상의 선택지에 표시한 응답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응답만을 가지고 비율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것을 〈표 II-23〉의 남한 주민의 설문결과와 비교하면 역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서는 제시된 다섯 가지 이유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당위적인 이유가 28.5%로 가장 높긴 했지만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었으며, 다른 이유에 대한 응답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의 이유에 대해 이산가족 고통해소나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 등에 대해서 비슷한 비

올로 응답했기 때문에 민족의 당위성이라는 점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남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로 절반을 차지했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5.3%로 뒤를 이었다(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6.1%로 가장 낮았음). 특히 남한 주민들은 북한의 위협과 안보불안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북한이탈주민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남한 주민 가운데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9.1%)나 북한 주민도 잘 살기 위해서(4.4%)라는 응답은 낮았다.

〈표 II-22〉

(단위: 명)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중복 제외)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 고통 해소	전쟁 위험 해소	북한 주민도 잘 살도록	선진국이 되기 위해	기타
78	52	44	50	47	3
28.5%	19.0%	16.1%	18.2%	17.2%	1.1%

〈표 II-23〉

2012년 통일외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 고통 해소	전쟁 위험 해소	북한 주민도 잘 살도록	선진국이 되기 위해	기타
45.9%	9.1%	25.3%	4.4%	14.5%	0.8%

세부 변인별로 살펴보면,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험에 따라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24〉를 보면, 통일교육 강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통일의 이유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차이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한 사람들은 통일의 현실적 이유와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해서 본인이 학습을 하고 이것을 강의한 결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24〉

통일교육 강사활동 경험에 따른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분포

(단위 : 명)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 고통해소	전쟁 위험 해소	북한 주민도 잘 살도록	선진국이 되기 위해	기타	합계
통일 교육 강사 경험	있다	4 22.2%	2 11.1%	3 16.7%	1 5.6%	7 38.9%	1 5.6%	18 100.0%
	없다	74 29.2%	49 19.4%	41 16.2%	48 19.0%	39 15.4%	2 0.8%	253 100.0%

바) 통일 한국의 체제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 한국의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II-25〉와 같다.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의 현 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107명(33.9%)로 가장 많았다. 남북한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92명(29.1%), 남북한의 체제를 절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명(19.0%), 통일만 된다면 체제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40명(12.7%),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7명(5.4%)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I-25〉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명)

남한 현 체제 적용	남북한 체제 절충	남북한이 합의 결정	두 체제 각기 유지	통일만 된다면 체제는 무관	합계
107	60	92	17	40	316
33.9%	19.0%	29.1%	5.4%	12.7%	100.0%

다음의 〈표 II-26〉에 제시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남한 주민들에서는 통일한국의 체제로 남한 현 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4.3%로 북한이탈주민의 3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한국의 체제로 남한체제를 선호하는 정도는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체제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남한체제에 대한 동화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택지가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남북한 체제를 절충하거나 합의하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북한이탈주민에서는 48.1%로 나타났지만, 남한 주민에서는 37.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하자는 의견은 남한 주민에서 15.1%로 북한이탈주민의 5.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일만 된다면 체제는 상관없다는 의견은 북한이탈주민에서 12.7%로 남한 주민의 3.0%에 비해 높았다.

〈표 II-26〉

2012년 통일외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남한 현 체제 적용	남북한 체제 절충	두 체제 각기 유지	통일만 된다면 체제는 무관	합계
44.3%	37.7%	15.1%	3.0%	100.0%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II-27〉을 보면, 남성들은 남한의 현 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명(46.0%)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여성들은 남한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1명(33.3%)로 가장 높았다.

〈표 II-27〉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한 집단별 분석 결과

(단위: 명)

통일 한국은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하는가		남한 현 체제 적용	남북한 체제 절충	남북한이 합의 결정	두 체제 각기 유지	통일만 된다면 체제는 무관	합계
성 별	남성	46	19	19	5	11	100
		46.0%	19.0%	19.0%	5.0%	11.0%	100.0%
	여성	61	41	71	12	28	213
		28.6%	19.2%	33.3%	5.6%	13.1%	100.0%

사) 통일 가능 시기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II-28〉과 같다.

〈표 II-28〉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합계
31	92	59	13	28	87	310
10.0%	29.7%	19.0%	4.2%	9.0%	28.1%	100.0%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0년 이내일 것이라는 의견이 92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87명(28.1%)으로 뒤를 이었다. 10년 이내에 빨리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응답은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표 II-29>을 보면, 30대와 40대에서 통일 가능 시기를 길게 보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의견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29>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집단별 분석 결과

(단위: 명)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합계
연령대	20대		12	27	18	10	12	20	99
			12.1%	27.3%	18.2%	10.1%	12.1%	20.2%	100.0%
	30대		7	28	24	2	11	34	106
			6.6%	26.4%	22.6%	1.9%	10.4%	32.1%	100.0%
	40대		6	28	7	1	2	24	68
			8.8%	41.2%	10.3%	1.5%	2.9%	35.3%	100.0%
	50대		4	5	4		2	5	20
			20.0%	25.0%	20.0%		10.0%	25.0%	100.0%
	60대 이상		2	4	4		1	4	15
			13.3%	26.7%	26.7%		6.7%	26.7%	100.0%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두 연구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남한 주민에 대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10년 이내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14.5%였으며, KBS조사²⁾에서는 17.1%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체제의 불안정, 주민불만 등을 고려할 때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한 주민들은 북한체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2) KBS 남북협력단. 『2012년 국민통일의식 조사』 (서울: 한국방송, 2012).

〈표 II-30〉

2012년 통일인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후	불가능	합계
2.9%	14.5%	25.9%	17.8%	19.8%	19.2%	100.0%

〈표 II-31〉

2012년 통일인식 조사
결과(KBS)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후	불가능	합계
17.1%	35.7%	21.2%	14.8%	11.2%	100.0%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통일 이후의 변화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I-32〉와 같다.

결과를 보면,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서는 약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75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72명(23.8%)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3.31점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서 약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140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4명(20.6%)으로 나타났다. 5단 척도점수로는 3.7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소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약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85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9명(22.6%)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2.70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101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9명(22.9%)으로 나

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3.36점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실업문제도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격차/갈등에 대해서는 약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99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70명(23.0%)으로 나타났다. 5단 척도점수로는 2.62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빈부격차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범죄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89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79명(26.1%)으로 나타났다. 5단 척도점수로는 2.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범죄문제는 통일 이후 가장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이념갈등에 대해서도 약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87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73명(24.2%)으로 나타났다. 5단 척도점수로도 2.88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념갈등 역시 통일 이후 약간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32〉

통일 후 변화에 대한 전망

(단위: 명)

구분	크게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크게 좋아질 것이다	합계	5단 척도점수 (표준편차)
정치적 민주화	22 7.3%	75 24.8%	63 20.9%	70 23.2%	72 23.8%	302 100.0%	3.31 (1.277)
경제 성장	28 9.0%	60 19.3%	19 6.1%	64 20.6%	140 45.0%	311 100.0%	3.73 (1.424)
빈부 격차	61 20.0%	85 27.9%	66 21.6%	69 22.6%	24 7.9%	305 100.0%	2.70 (1.240)
실업 문제	35 11.6%	61 20.3%	35 11.6%	101 33.6%	69 22.9%	301 100.0%	3.36 (1.341)
지역격차/갈등	58 19.1%	99 32.6%	70 23.0%	54 17.8%	23 7.6%	304 100.0%	2.62 (1.196)

구분	크게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크게 좋아질 것이다	합계	5단 척도점수 (표준편차)
범죄 문제	69	89	79	49	17	303	2.52
	22.8%	29.4%	26.1%	16.2%	5.6%	100.0%	(1.170)
이념 갈등	43	87	73	62	37	302	2.88
	14.2%	28.8%	24.2%	20.5%	12.3%	100.0%	(1.242)

다음의 <표 II-33>의 기존 남한 주민 대상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빈부격차, 지역갈등, 범죄문제, 이념갈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모두 약간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남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보다 통일 후 경제문제와 사회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 후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한 주민들은 통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탈주민들도 통일 후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나 남한 주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낮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실업문제가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남한 주민들은 실업문제 역시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지역에서 투자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서 실업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반면 남한 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노동력의 유입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실업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II-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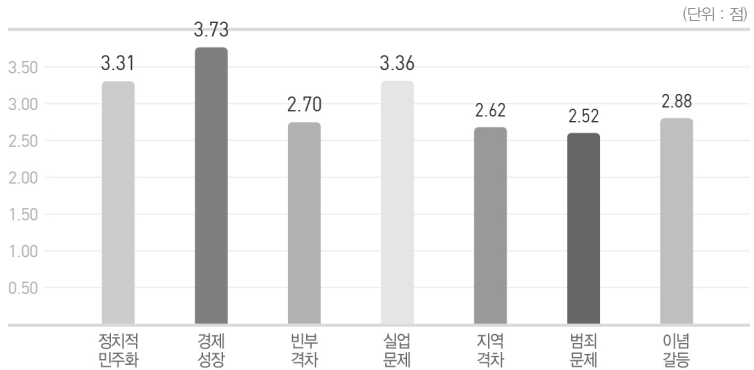
2012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구분	크게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크게 좋아질 것이다	합계
빈부격차	35.1%	34.3%	18.4%	9.4%	2.8%	100.0%
실업문제	26.4%	34.3%	15.8%	18.1%	5.5%	100.0%
범죄문제	29.9%	44.3%	19.9%	4.2%	1.8%	100.0%
지역갈등	30.0%	40.3%	18.8%	8.8%	2.1%	100.0%
이념갈등	33.7%	36.9%	16.0%	9.8%	3.7%	100.0%

이번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각 문항별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아래의 〈그림 II-29〉는 각 문항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5단 척도점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29〉

통일 후 변화에 대한 전망 점수 비교



문항별로 비교해 볼 때, 통일 후 변화에 대한 전망으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경제성장 영역으로 3.73점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실업문제는 3.36점, 정치적 민주화는 3.31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범죄문제는 2.52점으로 가장 부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역격차는 2.62점, 빈부격차는 2.70점, 이념갈등은 2.88점으로 비교적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격차의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 문항들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의 배경변인 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역시 교차분석이나 변량분석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기로 한다. 아래의 <표 II-34>는 각 문항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변인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34>

통일 후 변화에 대한
전망과 통계적 관련이
있는 배경변인

구분	성별	연령대	북한 학력	거주지	밀집 지역 거주	직업	가구 월소득	남한 거주 기간	해외 체류 기간	강사 경험
정치적 민주화				●▲						▲
경제성장										
빈부격차										
실업문제						▲				
지역격차/ 갈등				●▲	●▲					
범죄문제	●▲	●▲	●			▲				
이념갈등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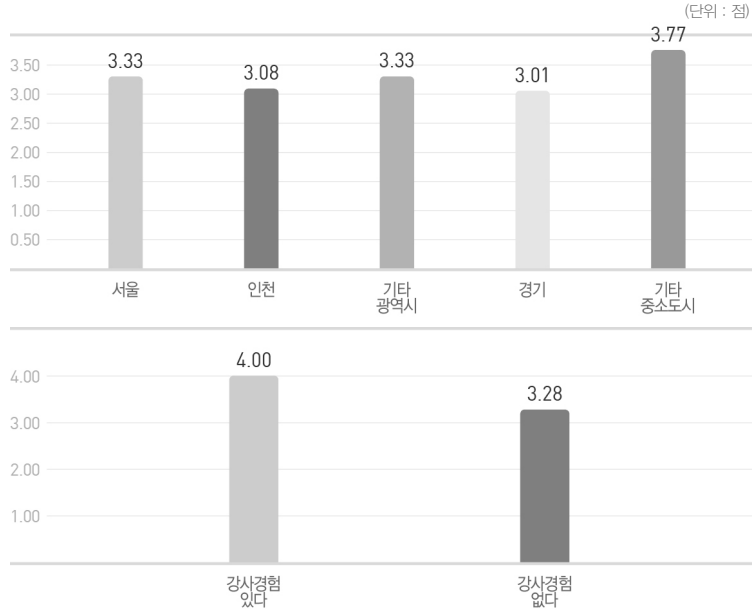
● : 교차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p<.05)

▲ : 변량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p<.05)

먼저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에서 차이를 보인 변인은 거주지와 통일교육 강사경험 변인이었다. 다음의 <그림 II-30>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를 제외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3.77점으로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 지역의 거주자들이 3.01점으로 비교적 낮은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었다. 통일교육 강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통일 후 정치적 민주화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림 II-30〉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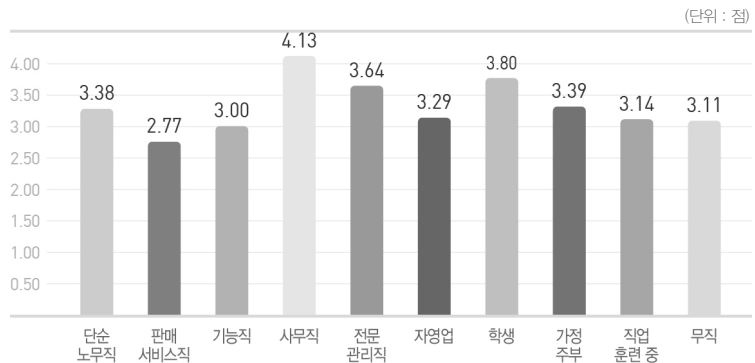


다음으로 경제성장과 빈부격차에 대한 전망은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동일한 전망을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문제에 대해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직업뿐이었다. 아래의 〈그림 II-31〉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직이 4.13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으며, 판매·서비스직이 2.77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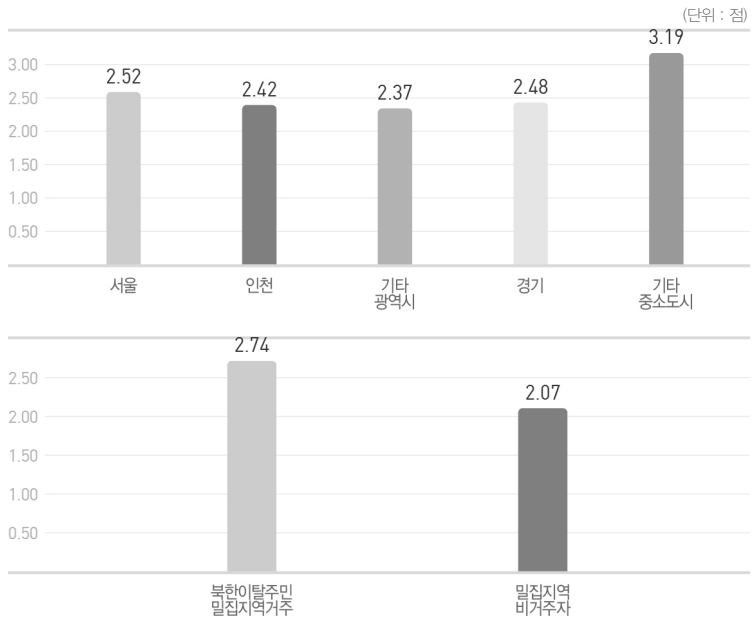
〈그림 II-31〉

실업문제에 대한 전망
응답 분석



지역격차에 대해서 차이를 보인 변인은 거주지와 북한이탈주민 밀집 지역 거주 여부였다. 아래의 <그림 II-32>에서 볼 수 있듯이 거주지에 따라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중소도시에서만 3.19점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분석되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지역격차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지역격차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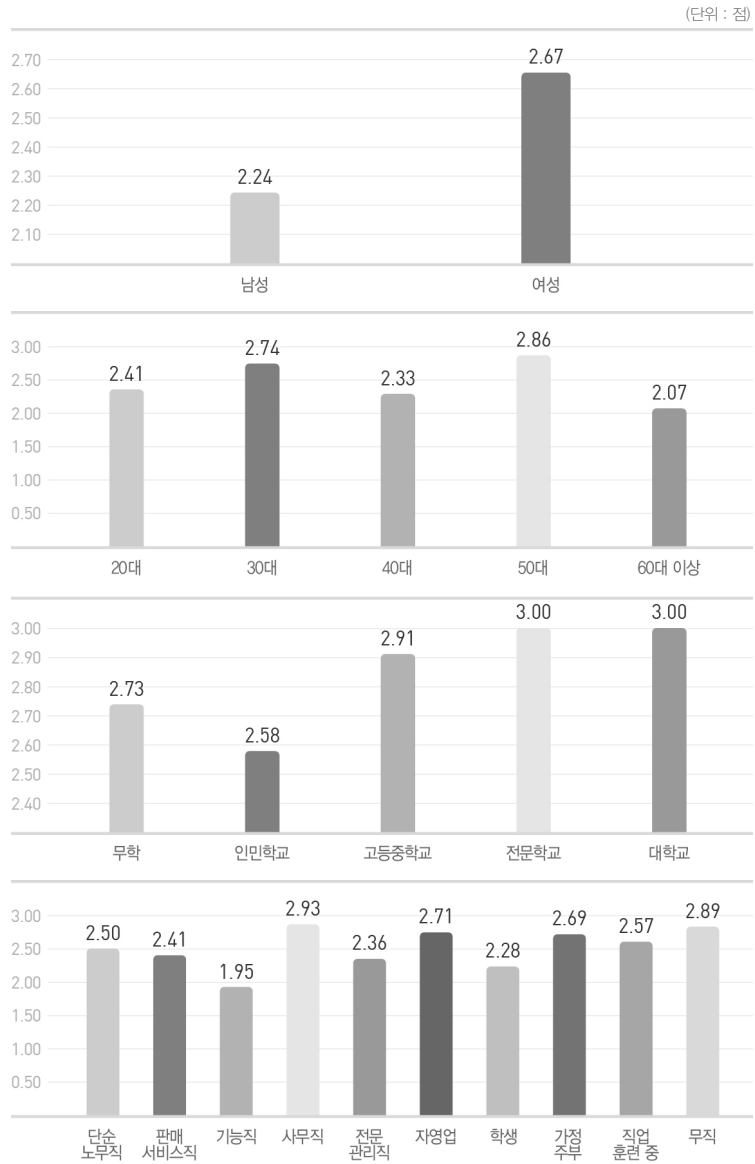
<그림 II-32>
지역격차에 대한 전망
응답 분석



범죄문제에 대해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별, 연령대, 북한 학력, 직업 등의 변인이었다. 다음의 <그림 II-33>에서 보듯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2.24점으로 범죄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특정한 경향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60대 이상에서 범죄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북한 학력에 대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범죄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기능직이 1.95점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림 II-33〉

범죄문제에 대한 전망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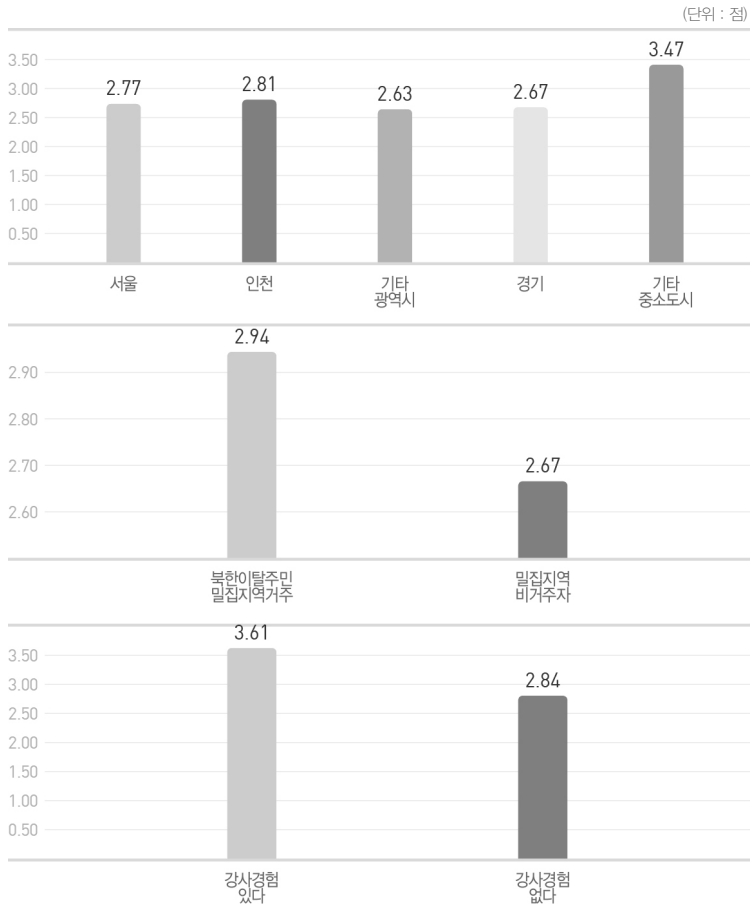


이념갈등에 대해서 차이를 보인 변인은 거주지와 북한이탈주민 밀집 지역 거주 여부, 통일교육 강사경험 변인이었다. 다음의 〈그림 II-34〉에서 볼 수 있듯이 거주지에 따라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중소도시

에서만 3.47점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분석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지역격차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통일교육 강사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일 후 이념갈등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림 II-34〉

이념갈등에 대한 전망 분석



5) 통일교육 경험 및 의견

가) 통일교육 경험 여부

여기에서는 남한 사회에 정착한 이후 통일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II-35>과 같다. 대체적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통일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5>

통일교육 경험 여부

(단위 : 명)

있다	없다	합계
169	148	317
53.3%	46.7%	100.0%

나) 통일교육 기관

앞에서 통일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69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통일관련 교육을 받았던 기관을 조사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합계가 100%를 넘어설 수 있다.

<표 II-36>

통일교육 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중복 허용)

(단위 : 명)

하나원	공공기관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학교	종교기관	사회단체	기타
137	40	50	14	25	9	2
81.1%	23.7%	29.6%	8.3%	14.8%	5.3%	1.2%

통일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137명(81.1%)은 하나원에서의 통일교육을 언급하였다. 그 뒤를 이어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50명(29.6%), 공공기관이 40명(23.7%), 종교기관이 25명(14.8%), 학교가 14명(8.3%), 사회단체가 9명(5.3%)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 통일교육의 도움 여부

통일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37>에 제시되어 있다. 통일교육 경험자 대부분은 통일교육이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해 주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3.0%에 그쳤다.

〈표 II-37〉

(단위: 명)

통일교육의 도움 여부
응답 분석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된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합계	5단 척도점수 (표준편차)
통일교육의 도움 정도	1	4	55	44	64	168	3.99
	0.6%	2.4%	32.7%	26.2%	38.1%	100.0%	(.929)

라) 통일교육 강사활동 경험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에 와서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II-38〉과 같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6.4%에 해당하는 20명만이 통일교육 강사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38〉

(단위: 명)

통일교육 강사활동
경험 여부

있다	없다	합계
20	294	314
6.4%	93.6%	100.0%

마) 통일교육 요구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통일교육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II-39〉와 같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합계가 100%가 넘을 수 있다.

〈표 II-39〉

(단위: 명)

통일교육 요구 영역
분석(중복 허용)

남한의 역사와 사회특성	북한 실태	통일의 필요성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타	없다
127	86	136	193	146	129	10	14
40.1%	27.1%	42.9%	60.9%	46.1%	40.7%	3.2%	4.4%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통일교육 영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것은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로 193명(60.9%)이었다. 다음으로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146명(46.1%), 통일의 필요성이 136명

(42.9%),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129명(40.7%), 남한의 역사와 사회 특성이 127명(40.1%), 북한 실태가 86명(27.1%), 기타 응답이 10명(3.2%)의 순서로 나타났다. 원하는 통일교육 분야가 없다는 응답은 14명(4.4%)에 그쳤다.

바) 통일교육 참석 의향

통일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40>과 같다. 결과를 보면,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참석할 생각이 약간 있다는 응답이 130명(41.0%)으로 가장 많았고, 가능하면 꼭 참석하고 싶다는 응답이 92명(29.0%)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3.96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남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석할 생각이 약간 있다는 응답이 151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가능하면 꼭 참석하고 싶다는 응답이 78명(24.6%)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4.0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석할 생각이 약간 있다는 응답이 131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참석할지 말지 고민된다는 응답이 77명(24.3%)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4.0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녀평등에 대한 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석할 생각이 약간 있다는 응답이 126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참석할지 말지 고민된다는 응답이 85명(26.8%)으로 나타났으며, 5단 척도점수로는 3.7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40〉

통일교육 참석 의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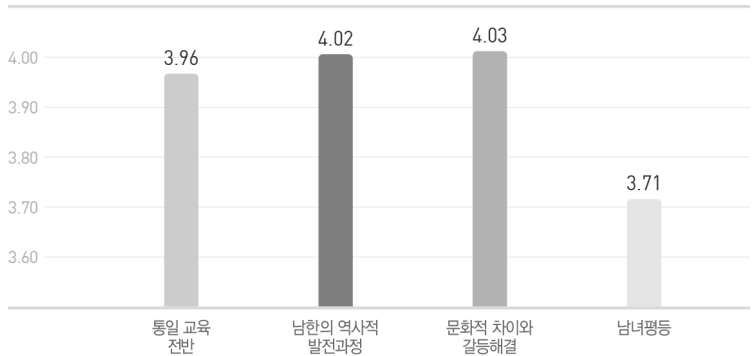
구분	참석하지 않겠다	기급적 참석하고 싶지 않다	참석할지 말지 고민 된다	참석할 생각이 약간 있다	가능하면 꼭 참석 하고 싶다	합계	5단 척도점수 (표준편차)
통일교육 전반	6	21	68	130	92	317	3.96
	1.9%	6.6%	21.5%	41.0%	29.0%	100.0%	(1.278)
남한의 역사적 발전과정	5	29	54	151	78	317	4.02
	1.6%	9.1%	17.0%	47.6%	24.6%	100.0%	(1.125)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	9	35	77	131	65	317	4.03
	2.8%	11.0%	24.3%	41.3%	20.5%	100.0%	(1.176)
남녀평등	9	19	85	126	78	317	3.71
	2.8%	6.0%	26.8%	39.7%	24.6%	100.0%	(1.331)

이번에는 각 문항별 결과를 상호 비교해보기로 한다. 아래의 〈그림 II-35〉는 각 문항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5단 척도점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35〉

통일교육 참석 의향에 대한 점수 비교

(단위: 점)



문항별로 비교해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문화적 차이와 갈등의 해결에 관련한 부분으로 4.03점의 높은 참석 의향을 보였다.

남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교육도 4.02점으로 역시 높은 참석 의향을 보였다.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 참석 의향은 3.96점 정도로 나타났으나, 남녀평등 교육에 대한 참석 의향은 3.71점으로 나타나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다음으로는 이 문항들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의 배경변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교차분석이나 변량분석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기로 한다. 아래의 <표 II-41>은 각 문항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변인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41>

통일교육 참석 의향과 통계적 관련이 있는 배경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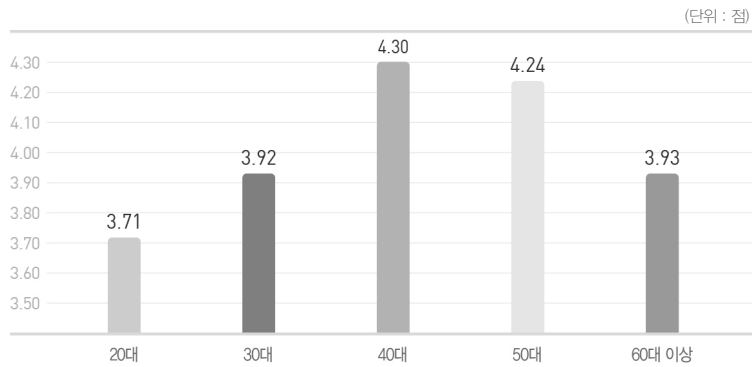
구분	성별	연령대	북한 학력	거주지	밀집 지역 거주	직업	가구 월소득	남한 거주 기간	해외 체류 기간	강사 경험
통일교육 전반		▲								
남한의 역사적 발전과정										▲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				●▲	▲					▲
남녀평등										

● : 교차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p<.05)
▲ : 변량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p<.05)

먼저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 참석에 대해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연령대 변인이었다. 다음의 <그림 II-36>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에 따른 일반화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40대와 50대의 교육 참석 의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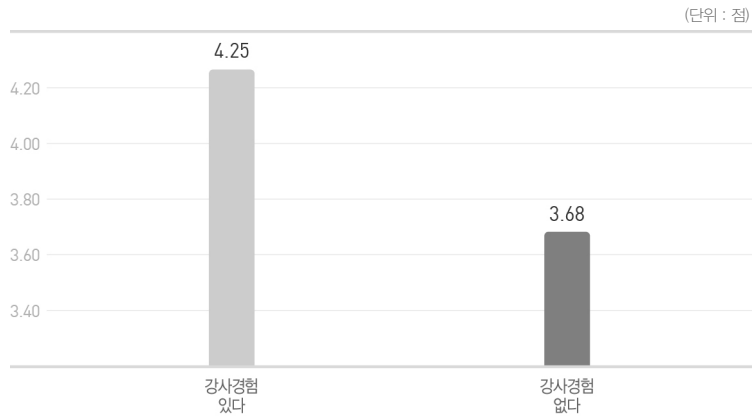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참석 의향 응답 분석



남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교육 참석에 대해서 차이를 보인 변인은 통일교육 강사경험이었다. 강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남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교육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이 높았다.

〈그림 II-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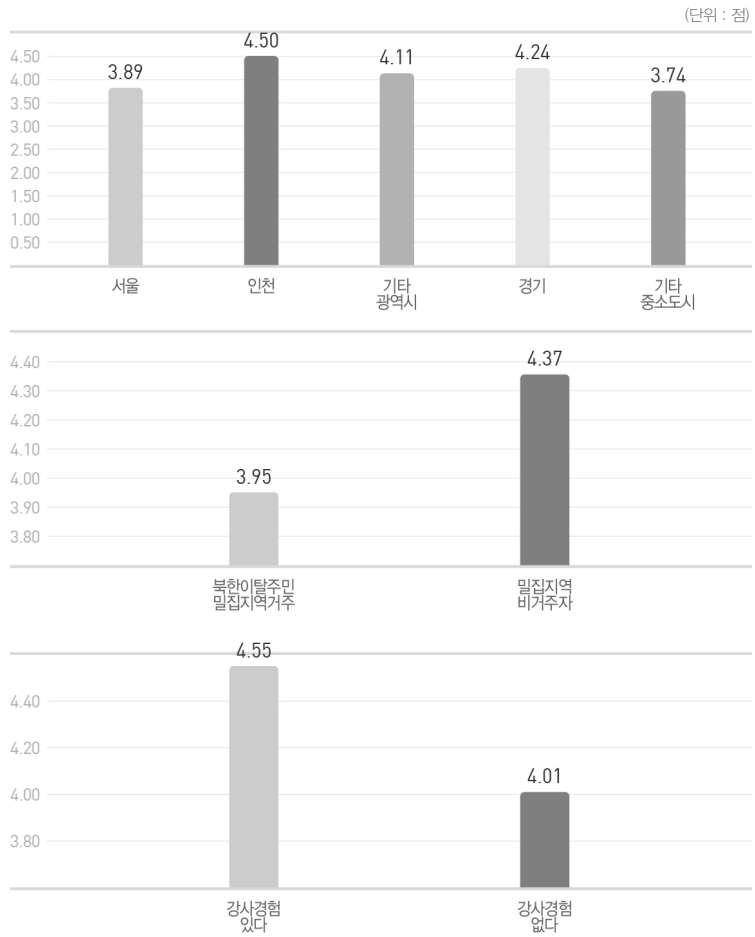
남한의 역사적 발전과
정에 대한 참석 의향
응답 분석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의 극복에 관한 교육 참석에 대해서는 거주지, 북한 주민 밀집지역 거주 여부, 통일교육 강사경험 등의 변인이 차이를 보였다. 다음의 〈그림 II-38〉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과 경기 지역 거주자들이 참석 의향이 높았으며, 기타 중소도시 거주자들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석 의향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주변에 북한 주민이 많이 없는 지역 거주자들일수록, 통일교육 강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참석 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38〉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 극복에 관한 참석 의향 응답 분석



남녀평등 교육에 대해서는 남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교육 참석 여부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는 변인이 없었다. 이것 역시 대부분의 집단에서 남녀평등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비슷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질적 면접을 통한 통일교육 요구 분석

가. 개요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대상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과제, 교육수요, 교육 대상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수요를 해석하기 위해 질적 면접을 통한 통일교육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을 실시하는 하나센터, 각 지역 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교육 관계자, 북한이탈주민 출신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강사들과 두 차례에 걸쳐 포커스그룹 인터뷰 형식으로 질적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교육과 관련한 교육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질적 면접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아래의 <표 II-42>와 같다. 이 이외에도 국내 통일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방향과 내용에 관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콘텐츠 내용 설계에 반영하였다.

<표 II-42>

질적 면접 대상자

연번	면접 대상자	성별	연령대	직업	면접일
1	130328_1	남	50대	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2013. 3. 28.
2	130328_2	남	30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2013. 3. 28.
3	130328_3	여	30대	학교통일교육 강사	2013. 3. 28.
4	130328_4	여	30대	하나센터 교육담당자	2013. 3. 28.
5	130328_5	여	30대	사회통일교육 강사	2013. 3. 28.

나. 조사 결과

1) 통일교육 실태

북한이탈주민이 강사로 참가하는 통일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표준교수안이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육 눈높이 강사’ 프로그램 등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원에서 배포하는 교육 자료나 통일교육 교재 등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통일교육 강의에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통일교육 강사는 북한에서의 생활경험을 활용하여 북한 실상과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학습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론적인 설명보다 본인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일상사적 접근을 한 강의의 경우에 학습자들의 이해도와 호응도가 높았다.

반면, 일부 강사들의 경우 북한 현실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입장을 취하거나, 특정 지역, 직업에 국한된 경험이나 개인의 편향된 생각을 일반적, 보편적인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_ 하나센터 교육담당자

남한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이 서로가 일치되어야 서로가 교육이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장점은, 생생히 자신이 살았던 북한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강사 개인적인 삶과 생각이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하여 일반화시켜 전달되는 것은 단점이고, 이러한 강의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북한은 지역 간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이야기만을 전부로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음에도 그 구성은 매우 다양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때 내용과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탈주

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시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통일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통일교육 강사를 일차적 교육 타겟그룹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통일교육 강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효과뿐만 아니라, 이들이 강의하는 통일교육에 참가하는 국민들에 대한 이차적 교육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북한이탈주민 통일강사들이 있다면, 강사들이 첫째로 역할 해야 할 부분은 남한 주민 대상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2만 5천명이 작아서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될 그 엄청난 후속적 영향을 생각할 때 통일에 잘 준비된 북한이탈주민 통일강사들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의는 더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의 기회는 미미한 상황이지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3개월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집중적인, 또는 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하는 교육은 전혀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은 자신의 재량을 통해서 마스크, 뉴스나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각각의 인식적 능력을 통해서 통일과 남북 간의 차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바르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저 역시 상당히 단편적이라고 생각하고,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혼동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 혼동은 남한 사회가 저희에게 주는 어떤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남한 사회가 통일에 대해 상당히 극명한 두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제시되는 자료들도 저희로서는 혼란 속에서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6·25만 놓고 봐도 이게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는 복잡다단한 남한의 쟁론 속에서 탈북자들은 그것을 읽기에 암울하고 혼돈스러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통일을 해야 된다.'는 분명한 생각으로부터 조금 혼선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북한이탈주민 출신 _ 하나센터 교육담당자

우선 강사를 위한 교육 및 강의 자료로 쓰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연 시 북한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만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의 통일 인식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파견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 현재 중요하죠. 좋은 교재를 만들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교육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남한에 와서 어느 정도 정착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원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통일교육과 연계가 부족하다. 정착지원 교육을 실시하는 하나센터 등에서는 주로 사회적응교육이나 직업교육과 관련된 교육이 실시될 뿐 통일교육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통일교육과정이 실시된다고 해도 적응과 정착, 구직이 시급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일교육에 참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의 교두보이며, 이들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은 통일의 예행연습이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단순 정착교육을 넘어서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난이도가 높지 않고 간결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선택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콘텐츠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된 통일교육 콘텐츠는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의 하나센터,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보급한다. 콘텐츠 개발자와 교수자가 다르고, 지역에 따라 교수자와 교육시간 등 교육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자료를 별도로 개발하여 학습자와 교수주체의 상황에 맞게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통일교육이 진행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센터에서 1년 정도 전문적으로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회 복지사 근무를 하기 전에 하나센터에서 근무를 했는데, 하나월이나 하나센터나 할당된 시간은 많지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착교육'이라 해서 성공한 탈북자들이 와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분들도 나름 자기 소신껏 얘기를 하지 한국의 사회에 대해 양쪽을 균등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으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지, 통일교육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및 내용

통일교육 내용으로는 해방 이후 전쟁과 분단, 한국의 발전과정에 대한 교육이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반적인 한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발전 과정이나 주요사건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질의식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의식 설문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교육 필요성이 남한의 역사적 발전과정 ≈ 남북한 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 > 통일교육 전반 > 남녀평등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아직도 북한이..., 대한민국 세금으로 해서 남한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지만 역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6·25전쟁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교육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침이나 남침이나 해가지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체성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김일성이 일으켰긴 했지만 그런 인식 못하고 남쪽에서 했냐, 북쪽에서 했냐,

인식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했을 때 역사인식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각들은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체성교육이 중요하게 된 겁니다. ... 바른 인식이죠. 6·25전쟁에 대한 바른 인식. 누가 누구를 침략했다는 것이든가, 38선 상에서 잦은 국지전이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벌써 당시 북한의 군인이 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남한은 7~8만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탱크 240대, 비행기도 100대가 넘었고요. 이러한 우월한 역량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 서울을 3일 만에 함락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준비한 것이죠. 휴전을 해서 끝나긴 했지만, 어느 한쪽이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 그러한 증거자료로 나온 것이죠. 그랬을 때 판단은 이탈주민들에 맡기면서 옳은 인식들을 줘야 하는 것이죠. 데이터화하면서, 6·25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1945년도에 열강들의 개입에 의해 분단된 것부터 해서 6·25전쟁이 어떻게 발발했고 그 추종자들은 누구고, 그러한 올바르게 데이터화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북한 김일성이 일으켰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과정,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충분한 인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근현대사나 과거에 했던 부분들은 북한은 교육을 전혀 못 받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성이나 선전, 교시, 노작, 그런 것만 배웠는데 남한에 오니까 지식이 약합니다. 역사에 대한 지식들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과거의 어떤 역사 인식을 알려주면서 동질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 불신할 것이 아니라 화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_ 학교통일교육 강사

역사와 과거를 모르면서 앞으로 미래의 것만 생각하고 미래의 것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북쪽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문제를 잘 생각하고 쌍방의 이해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분단 원인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분단되었느냐에 대해서 북한사람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여파라고 생각하겠지만 러시아도 있잖아요, 민족 내부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러한 정치적 자유를 얻은 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투쟁을 통해 얻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진보적 시각도 아니고 보수적 시각도 아니고 객관적 시각에서 설명해 주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고.

북한이탈주민 출신 _ 사회통일교육 강사

대한민국 역사에 관한 것을 넣는 것이 좋겠어요.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질리지만, 북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한국의 공화국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사회가 참 발전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기도 하고, 살면서 가끔 교양 자료로 보면서 가슴 뭉클한 것은 있지만, 거기서 끝나 버리니까.

북한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북한 사회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 계층 등 자신이 속했던 범주와 경험의 시각에 갇혀 상당히 주관적이고 편향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편향된 사고를 교정하고 통일 관련 주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통일의 어려움과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강대국 정치 아니면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등 또한 통일비용, 분단비용 함께 계산하기 등이 있으면 실제로 계산항목들을 제시해서 본인들이 상상하는 것하고 구체적인 실상하고 본인이 답을 내면 얼마나 통일과 분단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과정 자체가 통일 이후 남북한주민들의 통합을 미리 시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통일교육을 사회적응교육과 결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_ 학교통일교육 강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얼마나 잘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통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반대 생각을 가져야 하나. 그런데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잘 정착해서 북한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통일은 어떤 방향이냐?

북한이탈주민 출신 _ 학교통일교육 강사

저는 한 번에 합치는 것보다도 서로 오고가면서 점차적인 문화의 깎이랴든가 남북 간의 차이를 줄이고 그런 다음에 통일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남한 속 문화에 빠져보기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동료들과 생일즐기기’가 있으면 우리가 생일을 즐길 때 집으로 초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각각의 상황을 전부 다할 수는 없지만, 직장에서 동료사귀기, 남한친구 사귀기 등 남한친구에 대한 생각과 기대여파를 콘텐츠로 잘 만들면 상당히 문화가 통합되는 데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북한이탈주민 출신 _ 하나센터 교육담당자

자존심싸움과 대인관계, 흑백논리 등이 북한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힘들게 다가오는 요소 중 하나예요. 북한분들은 흔히 남한분들 간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분 나빴으면서 나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알아 차리기까지가 어려워요. 또 북한에서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책잡히면 안 되는 문화 때문에 남한에 와서도 내가 아닌 것에 대한 오해를 받았을 때 극도의 화를 내게 되죠. 한 번의 실수인데 남한 사람이면 잘 해결해 나갈 것도 북한사람들은 북한에서 경험에 의한 습관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통일 관련 주요 주제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자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단체 대표

통일교육에서 우리 탈북자들이 해야 할 역할도 이 콘텐츠에 다분히 좀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북한을 이해할 때, 북한을 김정일 혼자 사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특히 남쪽 매스컴의 포커스가 북쪽의 일인독재자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음은 감안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을 보는,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관념과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에 있어서 어떤 사명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에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서 잘 사는 것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 하고, 탈북자들은 남한국민들이 봤을 때 북한 주민의 대표적 샘플이고 통일 예행연습의 퍼포먼스 담당자라는 사실들을 잘 납득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회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대신 북한 사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과 성인학습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남북한 비교나 일상사적 접근을 도입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역사적 사건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분단과 전쟁 이후 한국사회가 발전해온 역사적 과정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그것을 북한 사회에서 생활하였던 자신들의 개인사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북한이탈주민인 본인들은 남한 사회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공감에 잘 되지 않습니다. 남한 사회의 역사를 말로만 설명해 줄 것이 아니라, 화면, 사진 등으로 보여주면 좀 더 같은 동질감을 느낄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기 전에는 알기가 어려운데, 딱딱한 자리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화면이나 동영상 등으로 재밌게 보여주면서 동시대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강연 다니면서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70년대 같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70년대 생활이 어땠는지를 직접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역사의 흐름을 스토리 있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역사를 연도별로 단순히 알려주기보다는 어느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서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궁금증이 해소되고 알기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내용으로 다문화교육을 다룰 경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통일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추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내용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다문화집단으로 규정하고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민자와 같은 범주로 다루는 관점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II. 통일교육 교수 자료

- 1차시 _ 남북분단과 전쟁
- 2차시 _ 남북한 사회의 발전
- 3차시 _ 한국사회의 다양성
- 4차시 _ 민주적 의사소통 : 사회생활
- 5차시 _ 민주적 의사소통 : 가정생활
- 6차시 _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알기 쉬운 통일교육

1차시 _ 남북분단과 전쟁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전체구성 »

1

남북분단과 전쟁

2

남북한 사회의 발전

3

한국사회의 다양성

4

민주적 의사소통 : 사회생활

5

민주적 의사소통 : 가정생활

6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분단과 전쟁

오늘날 남과 북

남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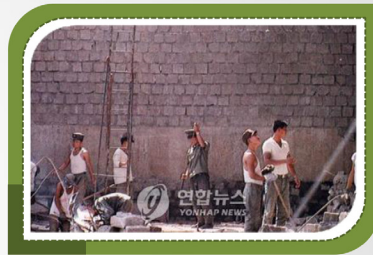


그리고

남한 모습



북한 모습



남한과 북한 사회, 어떤 점이 다른가, 어떤 점이 비슷한가?

	비슷한 점	다른 점
의식주	밥,국,김치 등을 주식으로 한다. 한복을 입는다. 온돌을 사용한다.	남한은 음식종류가 더 다양하다. 북한에서 한복을 더 자주 입고 인민복도 입는다. 남한에 아파트가 더 많다.
언어	한글을 사용한다.	표기법, 뜻이 다른 단어가 있다.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쓴다.
남녀관계	남자가 바깥일을, 여자가 집안일을 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 애정표현이 더 자유롭다.
학교교육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	북한학교에서는 조직생활을 중시한다. 남한학교에서는 경쟁이 심하다.

오늘 다룰 주제



분단과 전쟁은 남북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제 식민지배가 끝나고 조국이 **해방**되었습니다.

분단 비극의 시작

1945. 8. 15.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해방

해방 직후
38선 분단

해방과
남북 분단의 비극

-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승국들의 전후 처리 과정
-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북위 38도선의 이남에는 미군,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
- 한반도 분할 점령

분단 비극의 시작

소련



소련군 평양 진주 (1945. 8. 26.)



미군 서울 진주 (1945. 9. 9.)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 소련군의 진주
- 미군의 진주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38도선으로 분단됨

일본

미·소의 한반도 분할

분단 과정

: 연합국 회담에서 한반도 독립과 신탁통치 논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5년 12월)

신탁통치 결정

: 한국인이 자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미·영·소·중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 실시

알타 회담 (1945년 2월)

: 한반도 독립 재확인

카이로 회담 (1943년 11월)

: 적절한 과정을 거쳐 한반도
독립 허용



신탁통치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강대국이나 국제연합이 일정 기간
통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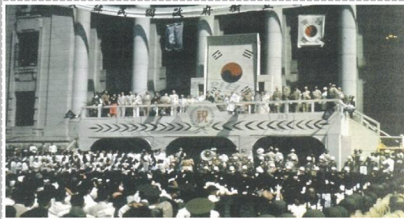
분단 과정

- 신탁통치안 발표 후 격렬한 좌우 대립 (찬탁-반탁)
- 미군정과 소군정 하에서 각각 사회 개혁 진행

-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와 결렬
- 한반도 문제 유엔 총회 상정
- 남북협상 추진 실패

해방 정국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 수립



대한민국 : 1948년 8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948년 9월 9일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분단의 원인

국제적 측면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냉전체제 대두

대륙 세력

-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
- 강대국들 간 세력 대립의 각축장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1946. 3. 20.)
미국측과 소련측 참석자

해양 세력

중국

소련

일본

미국

한반도 분단은 미국, 영국, 소련 등 전승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분단의 원인

국내적 측면 : 민족 내부의 응집력과 통일 역량 부족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함

- 독립운동의 구심점 결여 (이념, 노선 차이로 갈등)
- 민족 내부의 응집력 약화
-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일방적 처리

해방 후 단일정부 수립에 실패

- 격렬한 좌우 이념 대립
- 미군정과 소군정의 보호 아래 두 개 정부 수립

한민족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강대국의 전후 처리 방침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되고 1948년 두 개의 정부 수립으로 분단이 공고화됨.

잠깐, 생각해 봅시다

: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우리가 배울 교훈

민족 내부적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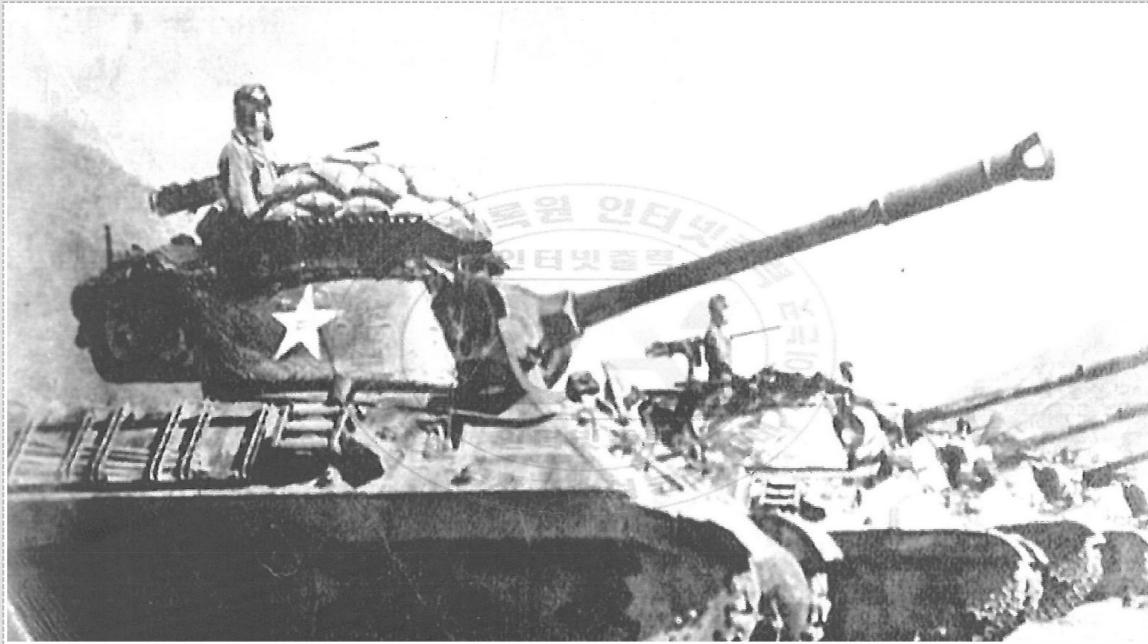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민족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정치적 차원

국제 정치적 상황을 잘 활용하여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한반도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되 우리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전쟁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6·25전쟁 (1950. 6. 25. - 1953. 7. 27.)

전쟁

전쟁과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기억들

전쟁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1. 6·25 전쟁은 남침이다. 북침이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북한군의 남침에 의한 전면전이다.

2. 6·25 전쟁은 남한의 승리이다. 북한의 승리이다.

누구의 승리도 아닌 휴전상태이다.

전쟁의 배경

- 38선 부근에서 연대급 이상의 병력이 서로 충돌
- 남한에서 남로당 주도 반정부투쟁으로 인해 약 10만 여명 사상자 발생

남북한
분단 정부
수립 후의 긴장

전쟁의 배경

소련과 중국의
전쟁 승인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선언

- 김일성의 모스크바 비밀방문 (1950. 3.)
- 모택동과 비밀회담으로 중국 지원 약속 및 전쟁 승인 (1950. 3.)
- 스탈린의 최종 승인 (1950. 5.)
- 한국을 동아시아 방위선에서 제외 (1950. 1. 12.)

전쟁의 시작과 전개

1950년 6월 25일 새벽4시 북한 인민군에 의한 전면적인 침공




북한의 남침 동영상 보기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전쟁의 시작과 전개



- 1기 
- 2기 
- 3기 

- (1기) 인민군의 공세
- (2기) 유엔군의 인천상륙
서울 수복, 북진
- (3기) 중국군의 참전
- (4기) 교착 상태
- (5기) 휴전협정 조인

5기 휴전협정 조인

전쟁이 남긴 것

· 인명 피해

	민간인			군인		
	사망	부상	실종	사망	부상	실종
남한	37만	22만	38만	13만	45만	2만
북한	40만	160만	68만	52만	22만	9만
UN군				3만	11만	6천
중국군				11만	22만	3만

· 경제적 피해

자료 출처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전쟁이 남긴 것



죽음과 폐허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전쟁이 남긴 것



전쟁이 남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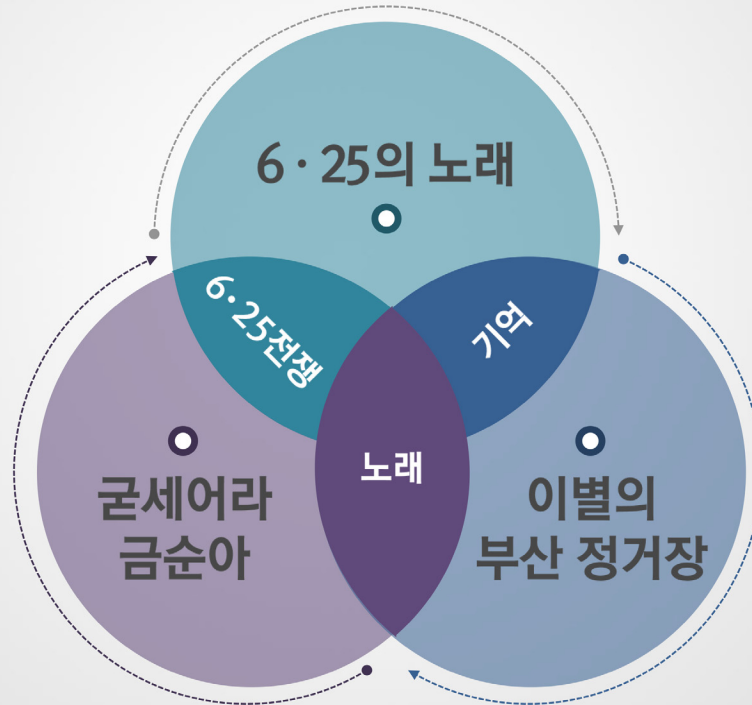
부상병,
미망인,
전쟁고아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전쟁의 기억

6·25 전쟁의 기억을 담은 대표적인 노래들을 소개합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 남북한 주민 모두 전쟁을 경험하였지만, 전쟁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서로 다릅니다.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의 차이를 토론해봅시다.

6·25 전쟁에 대한 해석

남북한 차이점

6·25 전쟁을 어떻게 부르는가?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가?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는가?

남북한 공통점

전쟁으로 국토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 우리 가족이 경험한 분단과 전쟁의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 전쟁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정리하기

- 오늘날 남북한의 **사회·문화의 차이**는 분단 이후 **약 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쳐 서서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결정되었습니다.
-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 내부의 결집**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6·25 전쟁은 분단 후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하였습니다.
- 전쟁은 **UN군과 중국군의 참전**으로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전쟁은 남한과 북한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사자, 부상자, 실향민, 이산가족, 전쟁고아, 미망인,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증오와 원망**을 남겼습니다.
- **평화적 통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알기 쉬운 통일교육

2차시 _ 남북한 사회의 발전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전체구성 »

1

남북분단과 전쟁

2

남북한 사회의 발전

3

한국사회의 다양성

4

민주적 의사소통 : 사회생활

5

민주적 의사소통 : 가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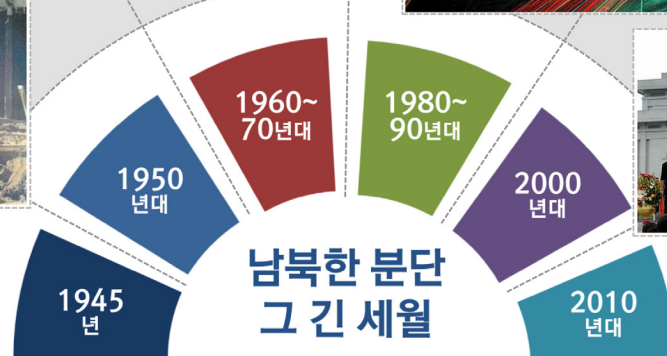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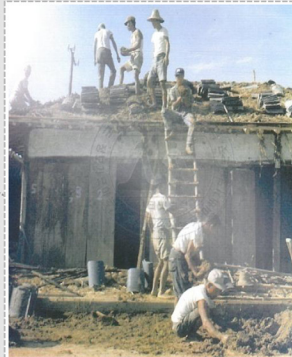
6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한 사회의 발전

시작하며 : 시간여행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연합뉴스



여기는 어디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시작하며 : 함께 생각해볼 문제



- 6·25 전쟁이 끝난 후 지난 60년간 두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어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나?
- 남한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왔나?
- 남북한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각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작하며 : 한국사회의 주요 사건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6·25 전쟁 (1950-1953)	4·19 혁명 (1960) 5·16 군사정변 (1961)	10·26 사태 (1979)	5·18 민주화운동 (1980) 6월 민주항쟁 (1987) 서울올림픽 (1988)	IMF 구제금융 (1997)	월드컵 (2002)	
		1차-4차 경제개발계획 (1962-1981)					
이승만 대통령 (1948-1960)		윤보선 대통령 (1960-1962) 박정희 대통령 (1963-1979)		전두환 대통령 (1980-1988) 노태우 대통령 (1988-1993)	김영삼 대통령 (1993-1998) 김대중 대통령 (1998-2003)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이명박 대통령 (2008-2013)	박근혜 대통령 (2013-)
국가건설과 전후재건		경제성장		민주화		사회통합과 통일	
시대적 과제							

시작하며 : 북한사회의 주요 사건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1948)	6·25전쟁 (1950- 1953)	청산리정신 (1960)	사회주의헌법 제정(1972)		경제난 (1995-)		선군정치
	천리마운동 (1958-)	제1차 7개년계획 (1961-1970)	6개년계획 (1971-1976)	제2차 7개년계획 (1978-1984)	제3차 7개년계획 (1987-1993)		
주체사상 도입(1950년대 말-) - 유일사상체계 확립(1960년대-) - 선군사상(2000년대-)							
김일성 주석 (1948-1994)					김정일 국방위원장 (1994-201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	
국가 건설과 전후재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경제 복구·체제 유지		
시대적 과제							

시작하며 : 한 가족의 이야기

한반도의 분단으로 많은 가족이 이별하였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강의에서는 박용성씨 형제가 남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통해 전쟁 이후 남북한 사회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형 박용성 (1940년생)

- 북한 원산 출생
- 6·25 전쟁 시 월남 결혼, 자녀(1남1녀) 자영업, 아우와 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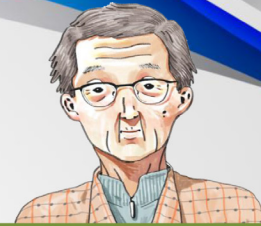
아우 박룡철 (1943년생)

- 북한 원산 출생
- 북한거주 결혼, 자녀(2남) 노동자, 탈북, 형과 재회



1950년대 (1953-1960)

박용성씨의 삶



박용성씨는 1940년에 태어났습니다. 강원도 원산에서 살다가 6·25 전쟁 중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동생 룡철씨와 헤어져서 남쪽으로 내려와 서울의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일명 꿀꿀이죽, 우유죽, 강냉이 등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모두 귀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쯤 곳곳에 전쟁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전국 고아운동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1950년대 (1953-1960)



박용성씨의 삶

박용성씨는 서울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급사로 일하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야간학교 졸업반 때 4·19 혁명이 터졌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사회가 어수선했습니다. 같은 밤에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다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1950년대 (1953-1960)

박룡철씨의 삶



박룡철씨는 1943년에 원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과 헤어져 혼자 남았습니다. 원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인민학교 학생들도 파괴된 건물이나 거리를 청소하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 전사회적으로 **천리마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거리마다 천리마운동 포스터와 깃발이 넘쳐났습니다.



1950년대 한국

해외 원조

해방 직후 미군의
행정구호 원조로 시작

6·25 전쟁과 전후복구기에
걸쳐 무상증여 원조

- 1953~1961년 매년 미국에서
2억 달러 이상 원조
- 농산물 원조, 산업기술 원조,
교육 원조, 주택 원조 등

1962년부터
차관 원조로 전환

행정구호 원조

무상증여 원조

차관 원조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1950년대 한국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해 여러 차례 헌법 개정
-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각종 부정 자행**
-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전국적인 학생·시민 시위로 발전 (**4·19 혁명**)
- 이승만 **대통령 사임**(4월 26일), 미국으로 망명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아시아 최초의 민주혁명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1960-1970년대

박용성씨의 삶



박용성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의류공장**에서 일하다가 196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967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1975년에 동대문에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옷은 잘 팔렸습니다. 신문에서는 매일 **새마을운동과 수출 증대**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소식에 온 가족이 슬퍼했습니다.



사진 출처: 국가기록원

1960-1970년대

박룡철씨의 삶



박룡철씨는 1960년에 기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청진에 있는 **기업소**에 배치받았습니다. 1974년에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1975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될 때는 **혹시 전쟁 중에 헤어진 형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국가기록원

1960-1970년대 한국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의 등장

-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 붕괴
- 국가재건최고회의 구성, 군정 실시
- 1963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 제 5대 **대통령**으로 **당선**
-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16년간 통치**



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1960-1970년대 한국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릴만큼 한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었습니다.

1960-1970년대 한국

경제성장 : '한강의 기적'

근로자 해외파견과
외화 획득
(1960-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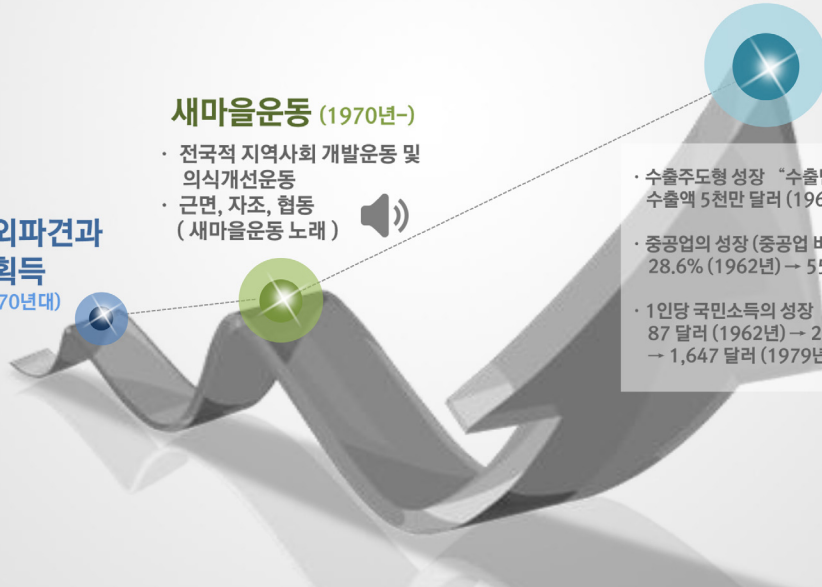
새마을운동 (1970년-)

- 전국적 지역사회 개발운동 및
의식개선운동
-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운동 노래)



경제개발계획 (1962-1981년)

- 수출주도형 성장 "수출만이 살길이다"
수출액 5천만 달러 (1962년) → 100억 달러 (1977년)
- 중공업의 성장 (중공업 비중)
28.6% (1962년) → 55.1% (1981년)
-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
87 달러 (1962년) → 243 달러 (1970년)
→ 1,647 달러 (1979년)



1960-1970년대 한국

유신체제와 민주주의의 후퇴



1960-1970년대 한국

개인의 자유 통제

퇴폐풍조 단속 :
장발, 미니스커트 검열



공연예술에 대한 심의 :
대중가요 방송금지곡 선정,
건전가요, 출판물, 영화 보급

혼분식운동 :
학생 도시락 검사, 분식의 날
(혼분식노래) 

해외여행 통제 :
해외인력수출 등으로만 제한

1980-1990년대

박용성씨의 삶



1987년 6월 동대문 일대에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용성씨의 아들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매일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용성씨는 아들이 다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6·29 선언이 발표되었을 때는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장사도 잘 되었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알고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아들 회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0-1990년대

박룡철씨의 삶



1990년에 들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 둘 **몰락**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배급이 줄어들어 생활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룡철씨 가족은 오열하며 슬퍼하였습니다.

홍수와 **기근**으로 먹는 것이 극히 부족하였습니다. 배급은 끊기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살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룡철씨도 살길을 찾아 가족과 함께 1997년에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80-1990년대 한국

5·18 민주화운동

- **12·12 사태** :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 취임 전두환 등 신군부 **군사반란**
- **5·18 민주화운동** : 1980년 5월, 신군부는 광주 지역의 **민주화시위를 계엄군을 투입하여 무력 진압**
- 2003년 현재 5·18 민주유공자 등록자 : 사망 207명, 부상 2,392명, 기타 희생 987명



1980-1990년대 한국



1980년대와 1990년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한 시기입니다.

1980-1990년대 한국

1980년대 민주화운동

-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 : 언론사 통폐합, 뉴스 사전 검열, 삼청교육대 운영, 학생운동 탄압, 퇴폐풍조 정화운동
- **6월 항쟁** :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반인권적 사건,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 요구 전국적 시위, 대통령직선제 수용 (1987. 6. 29.)
- 개정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로 **노태우 후보 당선**



1980-1990년대 한국

금융위기와 IMF 시대

1990년대 경제위기

1997년 말 외환위기 도래
IMF(국제통화기금) 긴급 구제 금융 요청

IMF 시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IMF 관리체제 하
구조조정, 외국자본 유치

-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 **IMF 관리체제** 하에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근로자 실직
- 이후 **정규직** 근로자 감소,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2000년대 이후

박룡철씨 이야기



중국에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2000년 우리 가족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6·25 전쟁 때 헤어진 형이 있다고 진술하고, **형을 찾고 싶다고** 부탁하였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서울 가양동에 집을 배정받아 새 생활을 시작하려는 무렵에 형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형과 형수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어릴 적에 헤어져서 잘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고향마을과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형임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형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박용성씨 이야기

어느 날 정부 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쟁 때 헤어진 동생 룡철이가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룡철이가 살아있었고 한국에 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룡철이 집으로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나보다 어린 나이에 고아로 고생이 많았을 것을 생각하니 앞으로 잘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한국사회의 다양화



마무리하며

- 박용성씨와 박룡철씨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은 그동안 헤어져서 살았던 **상대방의 과거와 경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깊이 이해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갈등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 7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보면, 남과 북은 **같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남한과 북한은 점차 **다른 발전과정**을 거쳤습니다.
- 남한은 그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입니다.
- 북한의 경우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과거를 거울삼아 남과 북이 함께 희망찬 **미래사회**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정리하기

- 1950년대 외국의 원조는 한국의 **전후복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한국의 경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속하게 **발전**하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이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한국의 민주화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속에서 점차 이루어졌습니다. 4·19 혁명(1960년), 5·18 민주화운동(1980년), 6월 민주항쟁(1987년)을 거쳐 점차 한국사회는 **민주화**되었습니다.
- 오늘날 한국사회는 **사회통합과 통일**을 사회적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기반 위에서 남북통일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알기 쉬운 통일교육

3차시_ 한국사회의 다양성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전체구성 »

1

남북분단과 전쟁

2

남북한 사회의 발전

3

한국사회의 다양성

4

민주적 의사소통 : 사회생활

5

민주적 의사소통 : 가정생활

6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한국사회의 다양성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사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나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어떠했나요?

정착 후 낯설게 느껴졌던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북한사회와 다른 점들은
무엇인가요?

한 가족의 이야기



박용성 (1940)

형제



박종철 (1943)



박충석 (1972)



임지애 (1975)



박영호 (1992)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

룡철아!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
잘 왔어!
오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니?
내가 **서울 시내**를 구경시켜주마.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

*** 생각해 봅시다.**

1) 현재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2)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3)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마련되어 있나요?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문화를 지닌 내 이웃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다문화사회' 라고 이야기 한단다. 우리 주변에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단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소개해줄게.



다양한 문화를 지닌 내 이웃

형! 뭐가 이리 복잡해요. 이곳은 또 어디야?
한국 맞아 ?



다양한 문화를 지닌 내 이웃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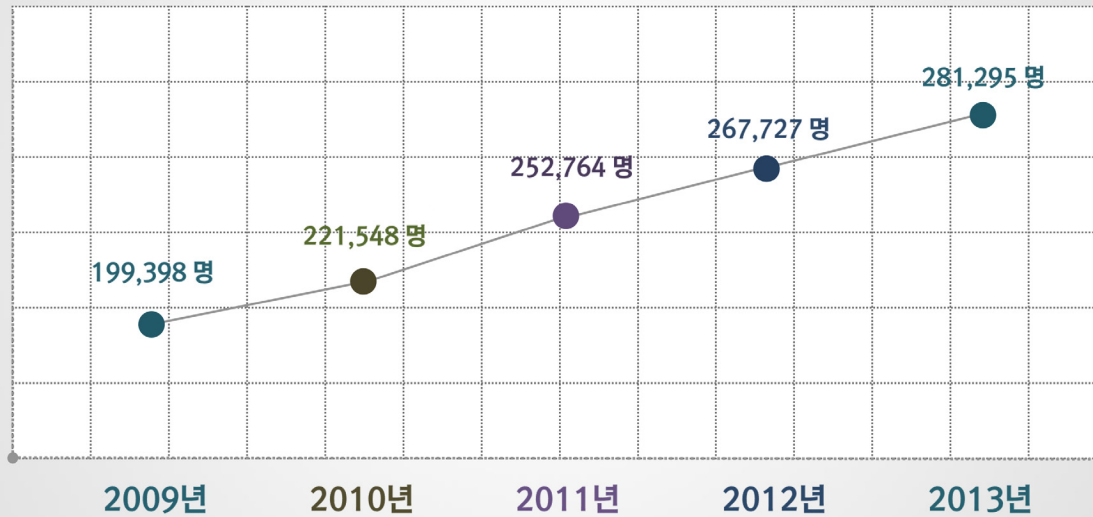
여긴 안산 원곡동 **다문화 마을**이란 곳이다.
이곳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외국인근로자' 들이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인 **'결혼이주자'** 들이
많이 살지. 내 아들이 운영하는 공장에도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일하고 있어. 그래서 며느리도
필리핀 사람을 얻었지.



한국에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주자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언제부터 한국에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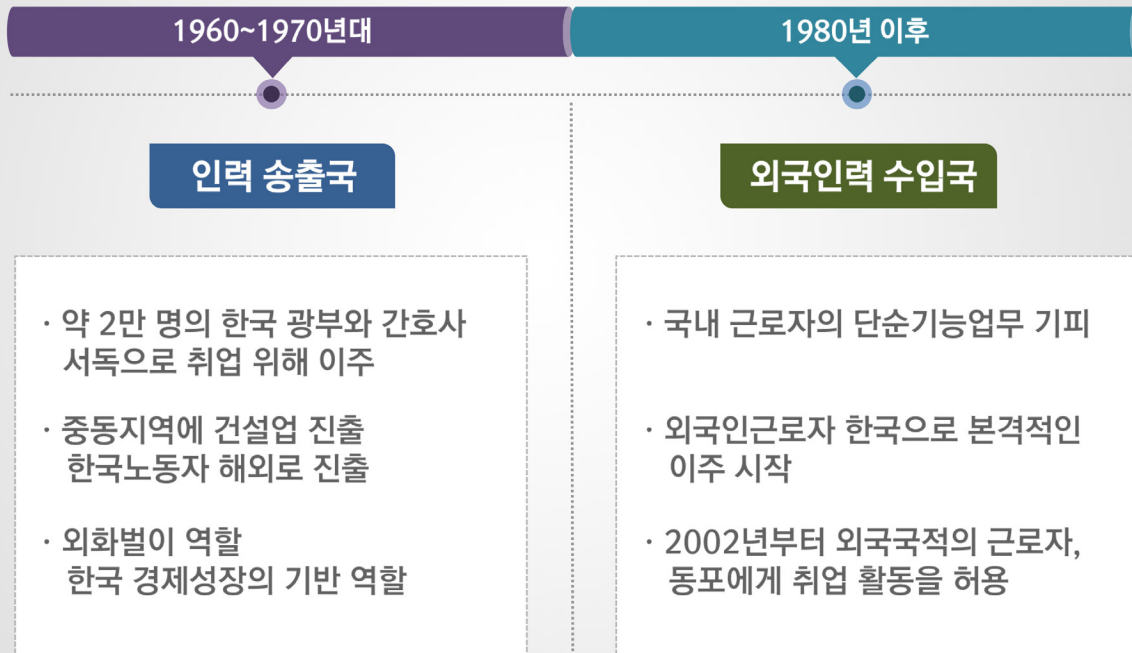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현황 (2013. 7. 5.)



출처: ~ 2013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관련 통계현황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등 포함)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역사적 배경



결혼이주자 출현 배경

편중된
성비

농촌의
고령화

1990년대부터
국제결혼 증가

외국인
고용

국제결혼
인식 변화



나와 다른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이들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이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언어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절실할거야.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그러게요.
그래도 다행이다!
난 **우리말**을 잘 하잖아. 하하하.



나와 다른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활동해 봅시다.

- 짝을 지어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한과 북한 사람의 **다른 점** 다섯 가지를 찾아봅시다.
- 그 차이점 때문에 겪은 일들을 기억하며 느낌을 이야기해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정리하기

-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 특히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주자 등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도 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 나와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기 쉬운 통일교육

4차시_ 민주적 의사소통 : 사회생활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전체구성 »

1

남북분단과 전쟁

2

남북한 사회의 발전

3

한국사회의 다양성

4

민주적 의사소통 : 사회생활

5

민주적 의사소통 : 가정생활

6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민주적 의사소통

사회생활(직장과 이웃)

한 가족의 이야기



박용성 (1940)

형제



박릉철 (1943)



박충석 (1972)



임지애 (1975)



박영호 (2000)

아버지를 모시고 일가족과 탈북한 **박충석**씨는 통일 후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에서, 그리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이 함께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시다.

어떤 상황일까요?



직장동료와의 대화, 어떤 결과가?

택배업무
직장생활의
시작

첫 직장으로 택배일을 시작한 박충석씨.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마침 직장동료가 있어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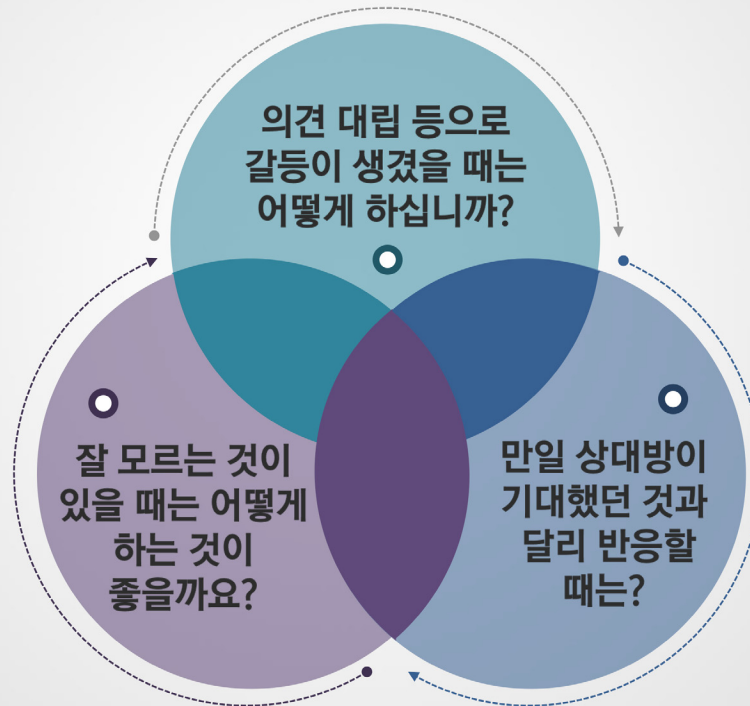


집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박충석: “나이도 어린 게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해!”
직장동료: “뭐라고? 아니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바쁜 사람
한테 왜 시비야!”

박충석: “저기 ‘집하처리’ 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겠소?”
직장동료: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택배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동료는 왜 그랬을까요?

직장동료는
왜 박충석씨 질문에
통명스럽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직장동료의 입장
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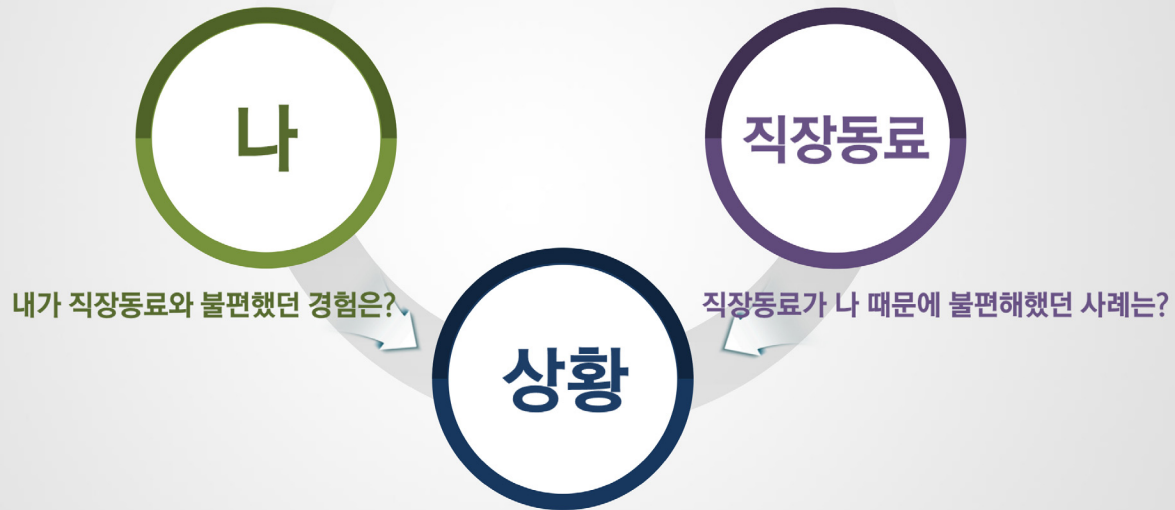
“많이 바쁘겠지만
제가 택배일을 처음 해서
'집하처리' 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만일 이렇게
물었다면
직장동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



만일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예시) 직장 동료가 **약속시간 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된다.
 계속 기다리려니 **걱정되고 불안해진다**.

- 1) **상대방의 행동(상황)** : 약속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됨.
- 2) **나에게 미친 영향(결과)** : 기다림, 계속 연락함.
- 3) **생겨난 감정** : 불안, 초조

나는 당신이 약속시간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아 기다리느라 걱정스러웠다.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화난 일을 얘기했더니, 내 잘못이라고 다른 사람 편을 들 때,

상대방의 행동(상황) : 화가 난 일을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 편을 들.

나에게 미친 영향(결과) :

말하고 싶지 않음.

생겨난 감정 :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함.

나는 화가 나서 얘기한 건데, 당신이 다른 사람 편을 드니
그 일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해요.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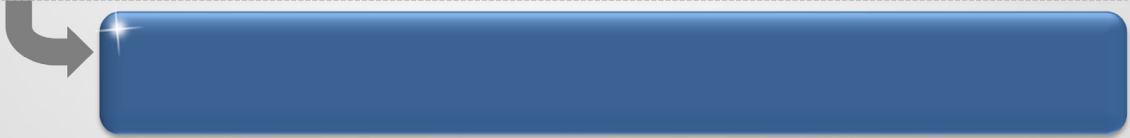


(나의 상황)

1) 상대방의 행동(상황) : _____

2) 나에게 미친 영향(결과) : _____

3) 생겨난 감정 : _____



어떤 상황일까요?



이웃과의 대화, 어떤 결과가?

밤늦게까지 이야기

고향 친구를 집에 초대한 박충석씨. 모처럼 고향음식도 해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저녁 9시 무렵, 아랫집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며 **항의**를 하러 왔다.

별걸 다 시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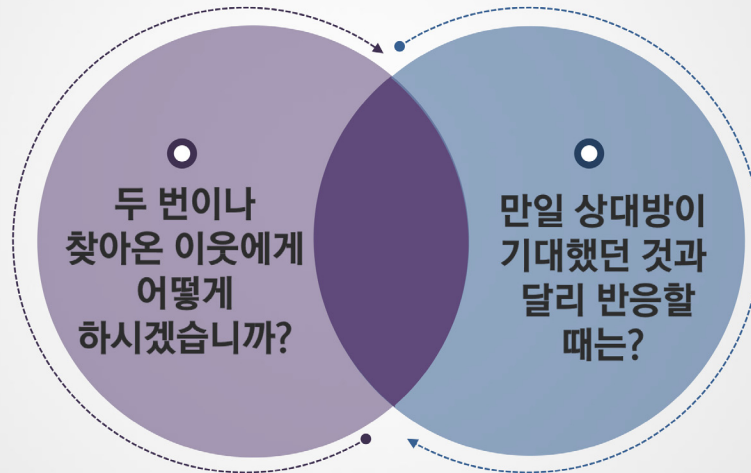


아랫집에서 항의

박충석: “거참, 얼마나 시끄럽다고. **별걸 다 시비야!**”
 이웃: “야~ 이 사람 정말 예의도 없군!”
 박충석: “**뭐라고?**”

박충석씨는 **미안하다**며 조용히 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다시 항의**가 들어왔다.
 이웃: “**지금 몇시인데, 좀 조용히 합시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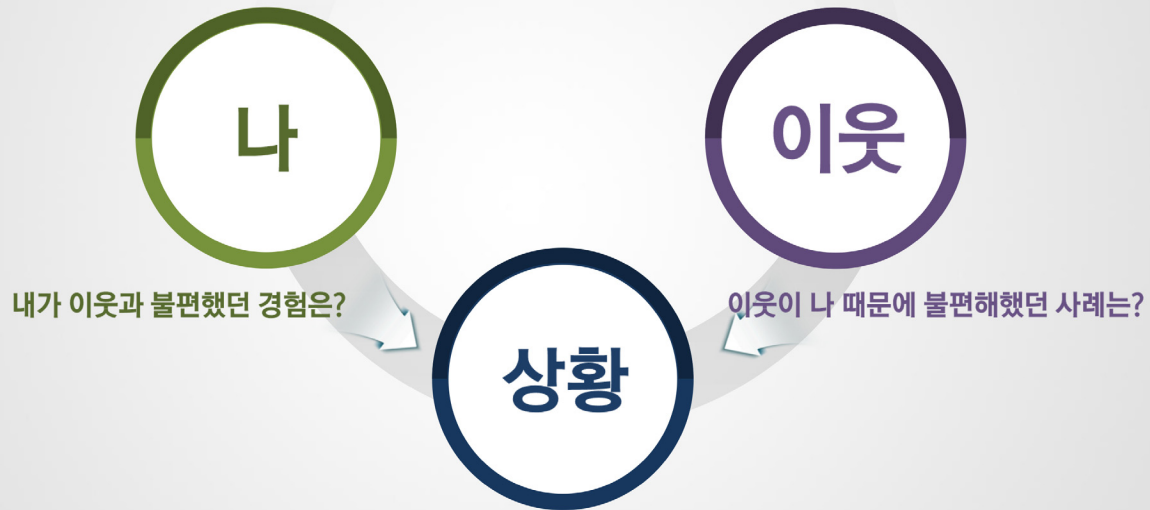
“아이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군요. 모처럼 고향 친구가 와서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다보니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만일 이렇게 말했다면 이웃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



만일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아랫집 사람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러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듣기

너무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느낌을 전달

많이 당황스럽고 놀랐어요.

느낌의 원인 설명

왜냐하면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몰랐거든요.

구체적 의문형으로 말하기

모처럼 친구가 와서 그랬는데 5분 안으로 정리할테니 5분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시끄러워 잠을 못 잘 정도라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시끄러운지 몰랐거든요. 모처럼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5분 안으로 정리할테니 조금만 참아주시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_____ 때,

- 1) 있는 그대로 듣기 : _____
- 2) 느낌을 전달 : _____
- 3) 느낌의 원인 설명 : _____
- 4) 구체적 의문형으로 말하기 : _____



정리하기

- 직장에서 또는 이웃간에는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합니다.
-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 나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 갈등해결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알기 쉬운 통일교육

5차시_ 민주적 의사소통 : 가정생활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전체구성 »

1

남북분단과 전쟁

2

남북한 사회의 발전

3

한국사회의 다양성

4

민주적 의사소통 : 사회생활

5

민주적 의사소통 : 가정생활

6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민주적 의사소통

가정생활

한 가족의 이야기



박용성 (1940)

형제



박릉철 (1943)



박충석 (1972)



임지애 (1975)



박영호 (2000)

아버지를 모시고 일가족과 탈북한 **박충석**씨는 통일 후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에서, 그리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이 함께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시다.

어떤 상황일까요?



부부 대화, 어떤 결과가 ?

피곤해.
나중에
살펴볼게.

힘겨운 직장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충석씨. 쉬고 싶은데 아내가 방문이 잘 안 닫힌다며 봐 달라고 한다.
박충석: “**피곤해. 나중에 살펴볼게.**”

뭐라고?
말 다했어?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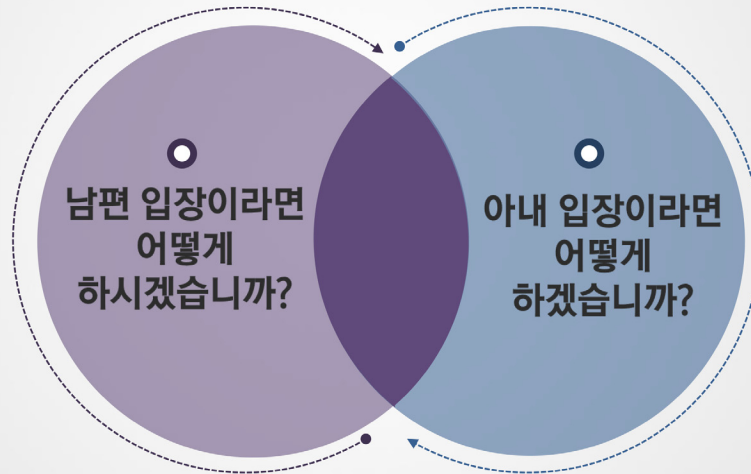
서운한 아내: “**뭐라고요? 참내, 다른 집 남편들은 설거지도 도와주고 집안일을 알아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박충석: “**뭐라고? 말 다했어? 내가 참는다 참는다 했는데 이걸 확 그냥!**”

아내: “**나중에 고치더라도 일단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라도 해 봐요.**”

짜증이 난 박충석: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멀쩡한 문이 망가지!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막 들어와서
피곤해서 그러니 잠깐
쉬었다가 일단 문 상태를
살펴볼게. 문 때문에
많이 불편했지?”



만일 이렇게
말했다면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당신이 다른 집 남편들보다는 손재주가 좋잖아요? 좀 쉬었다가 한번 봐줘요. 나 너무 불편해요.”



만일 이렇게 말했다면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폭력 사용하지 않기

이러한 말싸움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2012년 11만 4천 건의 이혼 중 무려 1만1천 건의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 <통계청>

-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 거다.”
“가정폭력은 가족간에 흔히 있는 일이다.”
라는 잘못된 편견



가정폭력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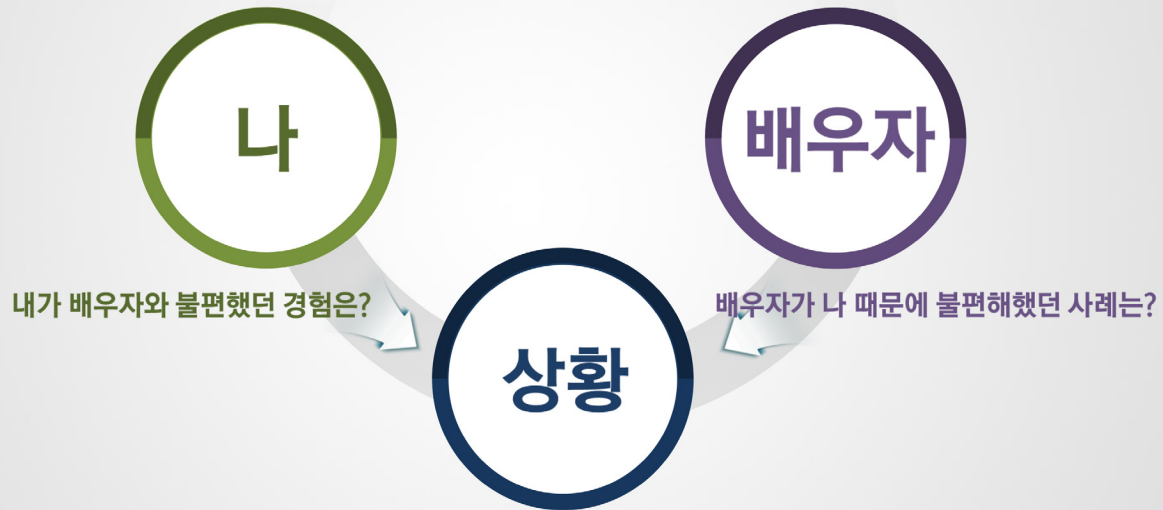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의 약 50%**는 성인이 된 후 가정폭력에 노출

가정폭력의 유형



-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흉기로 위협하는 폭행
- 폭행 후 강제적으로 강간,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강제적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두려움, 불안,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 잠을 못 자게 하기, 무시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창피주기, 일을 못하게 하고 경제권을 통제하기,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감 주기, 무능력하다고 비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



만일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예시) 내 생일을 기억하고 미역국과 생일상을 준비해줬다.
뜻밖의 생일상에 놀랐고 고마웠다.

- 1) 상대방의 행동(상황) : 미역국과 생일상을 준비해 줌.
- 2) 나에게 미친 영향(결과) : 놀람
- 3) 생겨난 감정 : 고마움

나는 당신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미역국과 생일상을 준비해줘서
놀랐고 고마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일찍 퇴근할 줄 알고 모처럼 식사를 준비했는데, 배우자가 연락도 없이 늦음.

상대방의 행동(상황) : 연락도 없이 늦게 집에 들어옴

나에게 미친 영향(결과) : **괜히 식사를 준비했나 후회가 됨.**

생겨난 감정 :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 한 통 없어 서운함.**

나는 당신이 일찍 퇴근할 줄 알고 모처럼 식사를 준비했는데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까
괜히 식사를 준비했나 싶고, 연락도 없어서 서운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상황)

1) 상대방의 행동(상황) : _____

2) 나에게 미친 영향(결과) : _____

3) 생겨난 감정 : _____



어떤 상황일까요?



자녀와의 대화, 어떤 결과가 ?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최근 들어 아이가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말도 안하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데 못 들은 척 방으로 들어간다.

너 당장 문
안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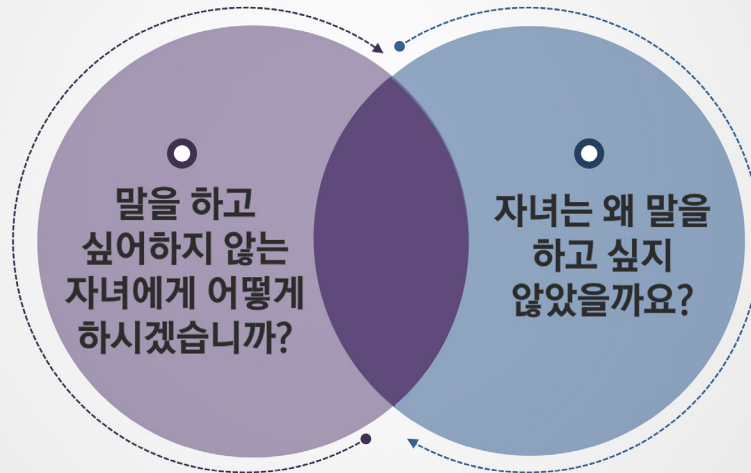


버르장머리
없이 ...

자녀: “난 할 말 없어. 혼자 있고 싶어요. 짜증나게 왜 그래요?”
박충석: “뭐, 짜증나? 안 되겠군. 너 당장 문 안 열어?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박충석: “너 이 녀석, 아빠가 말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문을 쿵쿵 두드린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럼 좀 쉬었다가 아빠와
5분만 이야기 좀 했으면
하는데... 기다릴게.”



만일 이렇게
말했다면
자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



만일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집에서 1시간 넘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듣기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니

느낌을 전달

걱정이 된다.

느낌의 원인 설명

왜냐하면 네가 게임 중독에 빠질 것 같아서

구체적 의문형으로 말하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하니?

1시간 넘게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보니 걱정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중독에 빠진다고 하던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_____ 때,

- 1) 있는 그대로 듣기 : _____
- 2) 느낌을 전달 : _____
- 3) 느낌의 원인 설명 : _____
- 4) 구체적 의문형으로 말하기 : _____



정리하기

- 가정에서 가장 좋은 의사소통 방법은 **대화**입니다.
- 가정폭력은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고 **범죄**입니다.
- 부부 간에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가정은 자녀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 자녀에게 비난, 행동 강요를 하기보다는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기 쉬운 통일교육

6차시 _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전체구성 »

1

남북분단과 전쟁

2

남북한 사회의 발전

3

한국사회의 다양성

4

민주적 의사소통 : 사회생활

5

민주적 의사소통 : 가정생활

6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생각해보기

통일 후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통일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박용성 (1940)

형제



박룡철 (1943)

원산이 고향인 박용성씨 형제는 6·25 전쟁 중에 헤어져 50년간 각각 남과 북에서 살았습니다. 2000년, 아우 박룡철씨가 가족과 함께 탈북해서 한국으로 와 형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의미



통일의 의미

형! 형은 통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북이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면, 고향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북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통일의 의미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통일 이후의 변화 전망

과반수 이상이 통일 후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전망



통일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 **정치적 민주화**는 다소 **개선**될 것이다.
-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 **빈부 격차**는 **심화**될 것이다.
- **실업문제**는 **개선**될 것이다.
- **지역 격차 및 갈등**은 다소 **심화**될 것이다.
- **범죄문제**는 다소 **심화**될 것이다.
- **이념갈등**은 다소 **심화**될 것이다.

출처: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 설문조사, 2013

통일의 의미



남과 북으로 분단된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새로운 민족공동체 건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 정도 인식 차이- 통일은 “필요하다”

86.2%

북한이탈주민 86.2%

(통일연구원 2013)

57.1%

남한주민 57.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2)

통일의 필요성



룡철아! 우리에게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 그래야 고향에 갈 수도 있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어머니도 뵈 수 있고 ...

그런데 이곳에는 우리같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많은데.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회의와
우려 확산

긍정적인
통일관으로
전환 필요

통일의 필요성

정치 · 외교적 차원의 통일 필요성

‘분단국가, 분쟁국가’
라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한국의 이미지에서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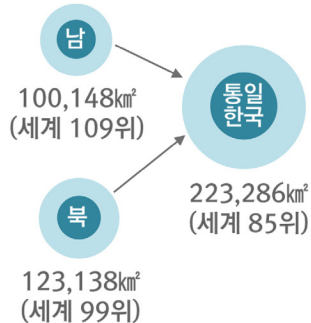
➔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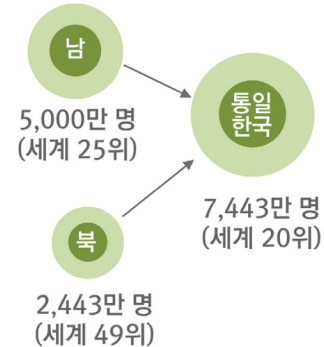
통일의 필요성

경제적 차원의 통일 필요성: 통일한국의 경제력 강화

공간 통합



인구 수



자료 출처 : 통계청(2012년 기준)

역량의 결합

: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 풍부한 광물자원

통일의 필요성

안보적 차원의 통일 필요성



남북통일은 휴전선과 북방한계선 (NLL)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소는 물론 북한의 핵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

통일의 필요성

사회 · 문화적 차원의 통일 필요성

이산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

이념적
사회갈등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

사회 분열과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냉전시대의 적대적 대결관계
(1960-1980년)

탈냉전시대의
적대적 공존관계

21세기 협력적 공존관계

- 1971년
적십자사를 통해 남북한
대화과 교류 시작

-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UN회원국으로 동시 가입

-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10·4 정상선언)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동영상 : **사회문화적 노력**
(통일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통일 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통일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 우리는 통일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먼저 도착한 **북한주민의 '대표'**입니다.
- 우리는 통일 후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해 알려주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북한사회**에 대해 알려 줄 수 있습니다.
-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한 경험을 살려 **남북한주민들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남북한의 **연결자**, 남북한 통합의 **촉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 **통일한국**은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풍요로운 삶을 공유하는 **민족공동체 국가**를 의미합니다.
- 정치, 경제, 안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며, 역사적으로 남북한은 통일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 통일한국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차적 역할은 한국사회에서 **정착**과 **적응**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첨부〉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수요조사 설문지

No. _____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 조사 설문지

안 내 문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KINU)은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의식실태와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통일교육 콘텐츠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개인 정보나 신상에 대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지켜짐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각각의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통일연구원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 전 화 : 02-901-0000
- E-mail : 000@kinu.or.kr

〈통일의식 조사 설문지〉

※ (문 1~7) 귀하에게 해당하는 답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남한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한의 역사에 대해 잘 알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한의 정치민주화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남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 (문 8~11)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귀하의 사고방식과 문화는 남한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사회생활(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에서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9. 남녀관계(배우자, 이성친구, 이성동료와의 관계 등에서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자녀관계(다른 세대와의 관계)에서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 (문 12~15)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직장,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사회생활(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배우자나 이성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5.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문 16~23) 통일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답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16.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 ②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③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④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문 17.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다소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18. 귀하는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 ① 매우 관심이 많다.
- ② 약간 관심이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관심이 없다.
- ⑤ 전혀 관심이 없다.

문 19.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20.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같은 민족이니까
- ②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 ③ 남북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 ④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 ⑤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 ⑥ 기타(적어주세요:)

문 21. 통일 한국은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남한의 현 체제를 적용한다.
- ②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섞는다).
- ③ 남한과 북한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④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 ⑤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문 22.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5년 이내
- ② 10년 이내
- ③ 20년 이내
- ④ 30년 이내
- ⑤ 30년 이상
- ⑥ 불가능하다.

문 23. 통일 후 다음 사항들에서 통일 전에 비해서 한반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크게 나빠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크게 좋아질 것이다
23-1) 정치적 민주화	①	②	③	④	⑤
23-2) 경제성장	①	②	③	④	⑤
23-3) 빈부격차	①	②	③	④	⑤
23-4) 실업문제	①	②	③	④	⑤
23-5) 지역간 격차와 지역갈등	①	②	③	④	⑤
23-6) 범죄문제	①	②	③	④	⑤
23-7) 이념갈등	①	②	③	④	⑤

※ (문 24~32) 통일교육에 대한 귀하의 경험과 생각에 해당하는 답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24. 남한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통일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문 25.로) ② 없다. (→ 문 27.로)

문 25. 통일 관련 교육을 받아보았다면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교육을 받으신 곳을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

- ① 하나원
 ② 공공기관(통일교육원, 국정원, 지자체(시청, 구청 등)
 ③ 하나센터, 복지관 등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지원기관
 ④ 학교 ⑤ 교회 등 종교기관
 ⑥ 사회단체(NGO) ⑦ 기타 (적어주세요:)

문 26. 통일교육은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 32. 남녀평등 교육 기회가 있다면 참석할 생각이 있습니까? ()

- ① 가능하면 꼭 참석하고 싶다. ② 참석할 생각이 약간 있다.
- ③ 참석할지 말지 고민된다. ④ 가급적 참석하고 싶지 않다.
- ⑤ 참석하지 않겠다.

※ (문 33~42)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해 묻는 사항들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거나 빈칸에 적어주십시오.

문 33. 귀하는 언제 북한에서 탈북하셨습니까? (년 월)

문 34. 귀하는 언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까? (년 월)

문 35. 귀하의 나이대는 어떻게 됩니까(만 나이로 계산)?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 ④ 50대 ⑤ 60대 이상

문 3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성 ② 여성

문 37. 북한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 ① 안 다녔다. (또는 인민학교 중퇴)
- ② 인민학교(소학교)졸업 (또는 고등중학교 중퇴)
- ③ 고등중학교(중학교) 졸업 (또는 전문학교 중퇴)
- ④ 전문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 ⑤ 대학교 졸업 이상

문 38.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셨다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기간은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한국 폴리텍대학 포함),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대학원 포함)

(년)

문 39. 현재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기초 생활수급생계비 포함)? ()

- ① 49만 원 이하
- ② 50~99만 원
- ③ 100~149만 원
- ④ 150~199만 원
- ⑤ 200~249만 원
- ⑥ 250~299만 원
- ⑦ 300~349만 원
- ⑧ 350~399만 원
- ⑨ 400만 원 이상

문 40. 현재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단순노무직(가사도우미, 청소원, 배달원, 경비원, 건설일용직 등)
- ② 판매·서비스직(식당종업원, 판매원, 간병인,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등)
- ③ 기능직(전기, 기계, 자동차정비, 운전사, 제빵사 등)
- ④ 사무직(경리, 비서, 사무직원, 고객상담요원 등)
- ⑤ 전문·관리직(공무원, 관리직, 교사, 의사, 성직자, 연구직,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예술가 등)
- ⑥ 자영업(편의점 운영, 식당 경영 등)
- ⑦ 농업, 수산업, 축산업
- ⑧ 사회단체(NGO), 사회활동가
- ⑨ 통일교육 강사
- ⑩ 학생
- ⑪ 가정주부
- ⑫ 직업훈련 이수 중
- ⑬ 무직
- ⑭ 기타(적어주세요:)

문 41. 귀하는 현재 어느 곳에 살고 계십니까? 도, 시, 군까지 적어 주십시오.

()

문 42.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주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까? ()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회 편	22,000원
2012 China' 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 · 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 · 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 · 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매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근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Ⅲ: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Ⅲ: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정치 · 사회 · 경제 분야 통일 비용 · 편익 연구 (통일 비용 · 편익 종합연구 2013-02)	조한범 외	17,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 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근,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Studies Series

비매출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4,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